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의의나무 제자훈련

데이빗리 목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차

CONTENTS

의의나무제자훈련소개	6
제 1 단원 예수님을 닮은 삶	22
제 2 단원 구원의 삶	78
제 3 단원 하나님을 아는 삶	123
제 4 단원 말씀과 동행하는 삶	160
제 5 단원 기도의 삶	199
제 6 단원 권세자의 삶	261
제 7 단원 영적아비의 삶	333
제 8 단원 십자가의 삶	388
제 9 단원 성령충만한 삶	444
제 10 단원 마귀를 대적하는 삶	508
제 11 단원 의의나무의 삶	585
제 12 단원 사역자의 삶	631

의의나무제자훈련 소개

의의나무 제자훈련은 예수께서 명하신 '위대한 사명(the 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계명(the Great Commandment)'와 '위대한 사명(the Great Commission)'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출 20장).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함축시키셨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요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의 계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계명'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명'을 잘 지키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위대한 사명'은 선교사나 목사들이나 하는 사역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명'을 주셨듯이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사

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계명'도 지켜야 하지만 결코 '위대한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삼기의 대가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제자훈련을 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오직 12명의 제자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위 '제자훈련'의 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전파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칠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동은 온전히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2천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삼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삼음은 12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으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12명에 국한하셨으니 우리도 12명까지만 제자를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삼음에 근거를 두고 행하게 하는데, 평생동안 12명의 제자만 삼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많은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삼으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시 12명의 제자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삼음의 기본질서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12명의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12명을 제자삼는다는 것은 당치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명의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빨리 할 수 있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2명의 제자를 자녀처럼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만 많이 낳는다고해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듯이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에 2명의 제자를 삼게 되면 20년이 될 때에 지구상의 인구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껏 20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기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온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가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온 이슬람교도들이 전심전력으로 전도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머잖아 이슬람교가 기독교 인구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시스템을 따라 제자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제자를 양육하도록 돕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는 제자훈련 제자멘토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제자훈련제자멘토가 되면 스스로 제자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많아지고 많아질 때 이 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가득찬 땅이 될 것입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 유익

1.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계 19:7-8, 계 14:12, 사 61:10).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이는 신부의 예복이 오직 신랑을 위한 것과 같습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오직 주님의 옷을 입으며 주님께서 주신 세마포만을 입습니다.

2. 주님의 제자삼음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마 28:18-20).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대한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제자훈련제자멘토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자훈련제자멘토가 될 때 비로소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삼음은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관계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듯이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케 됩니다(엡 4:13-15, 롬 8:30).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인품과 신품에 있어서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4. 삶이 변화됩니다(고후 6:14-16, 고후 4:16, 고후 5:17).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삶이 변화됩니다. 이는 거룩한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믿음이 커지게 됨으로 보다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악을 싫어하시므로 우리 스스로 악을 멀리하게 되며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됨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됩니다.

5. 문제가 해결됩니다(막 11:23-24, 막 16:17-18, 요 16:24).

제자훈련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는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선포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

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질병세포들이 파쇄되어 질병이 치유함 받게 될 것입니다.

6.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요삼 1:2).

제자훈련을 통해 영이 활짝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성령님과 더욱 깊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강건해짐에 따라 저절로 육신이 강건케 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7.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고전 12:7-11).

제자훈련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은사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영이 열려짐으로인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강력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은사가 나타남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8. 하나님과 더욱 깊이있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롬 8:16, 계 3:20).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있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이고도 친절

한 제자멘토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령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며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 숙제

1. 간증하기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을 하면 할수록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도와줍니다.

2. 말씀묵상

의의나무제자훈련의 말씀묵상 숙제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의 워바 묵상교재를 가지고 매일 말씀묵상을 합니다. 워바 묵상교재는 다른 성경묵상교재와는 달리 보다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영성성장을 원하는 분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있게 알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성경읽기

제자훈련 기간동안 제자멘토에 의해 정해진 성경읽기 숙제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 1년 동안 일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성막기도

성막기도는 우리의 영성성장을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막기도는 성막의 성물을 따라 하는 기도법으로써 모든 성물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성막문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며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합니다.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며 진설병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여 도움을 청하며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더 나아가 방언으로 찬양도 하며 영의 찬양을 드립니다. 지성소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갖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 참여자들은 매일 성막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5. 영성일지

영성일지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방법입니다. 세계성막기도선교회에는 성막기도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 영성일지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 참여자는 매주 영성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합니다.

6. 복음전하기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숙제는 복음전파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기간동안 적어도 1명을 교회로 전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지에 대해 제자멘토와 함께 나눕니다.

7. 예배드리기

의의나무제자훈련 참여자는 참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요 4:23).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지역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성령충만한 예배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능력이 커져가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으심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며 상처와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8. 기타 숙제점검

제자훈련 제자멘토에 따라 내주는 숙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하는 숙제나 영성글을 읽는 숙제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멘토가 하라는대로 순종할 때에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교재 사용법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삶 나누기>는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훈련참여자가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자멘토와 참여자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생명수마시기>는 제자멘토를 통해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자멘토의 가르침이 끝나면 가르침에 대해서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삶 가운데 훈련받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훈련참여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훈련참여자는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거나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제자멘토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훈련참여자는 치유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고백하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질병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제목을 내 놓습니다.
제자멘토는 알게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회개해야 할 부분을 놓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매일 기도제목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제목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훈련 주의사항

1.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결석하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제자멘토에게 결석하는 사유를 미리 말하여서 제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결석할 경우엔 멘토가 내준 숙제를 해야 합니다.

결석할 경우엔 멘토가 별도로 내준 숙제를 해야합니다. 성경읽기, 기도하기, 영성일지쓰기, 금식하기 등 멘토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결석한 제자에게 적절한 숙제를 내 줍니다.

3. 다른 제자멘토가 인도하는 제자훈련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훈련자는 정해진 멘토가 인도하는 제자훈련반에서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제자훈련반의 훈련 mp3파일을 듣거나 다른 멘토의 가르침을 본인의 멘토의 가르침보다 더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멘토와 제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가지 영적관계(3SR)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너무나 환란과 역경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나 세상의 방해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악한세력의 공격은 신앙 좋은 성도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영적관계(3SR)"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 매우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이 세가지 영적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악한세력의 공격을 막고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 영멘삼기:

이것은 "영적제자멘토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당 세 명의 영적제자멘토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제자멘토가 있으면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제자멘토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영적제자멘토의 중보기도를 통해 실족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을 통해 아주 빨리 영적제자멘토를 찾게 될 것입니다.

2. 영자삼기:

이것은 "영적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당 12명의 자녀를 삼길 원하십니다. 1년에 2명의 자녀를 삼을 때 6년이면 12명의 자녀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자녀와 평생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영적아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고전 4:15).

> "[고전 4: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영적아비는 스승과 다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영적아비는 삶을 보여줍니다. 스승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어렵지만 영적아비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을 통해 우리는 12명의 영적자녀를 매우 빨리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영짝삼기:

이것은 "영적짝꿍을 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짝꿍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둘씩 짝지어서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영적짝꿍이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음을 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 쉽게 주님의 믿음

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영적짝꿍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이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짝꿍을 세 명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짝꿍을 쉽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석 및 숙제점검

주간 점검표 성명 : _____ 기간 : _____ ~ _____ 리더 : _____

순번	출석	간증하기	말씀묵상	성경읽기	성막기도	영성일지	복음전하기	예배드리기	숙제점검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20									
21									
23									
25									
26									
27									
28									
3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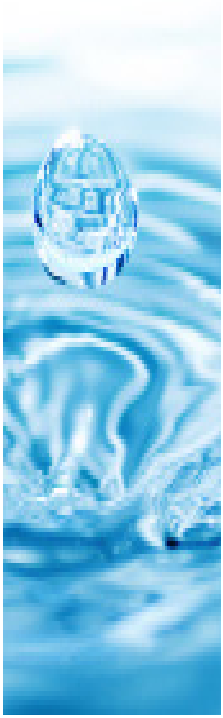
예수님을 닮은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삶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아버지와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장

/

예수님의 성품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성격)알기

1.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전부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 스스로 뭔가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2.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형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첼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인데 이는 무엇과 '닮음'이나 '같은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그대로 닮으셔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똑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셨고, 결코 죄에 물들지 아니하신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

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3. 인내의 예수님

예수님은 온 생애동안 오래참으시고 인내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디므로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인내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형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당하신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4.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6-7)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모든 영화를 다 소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오히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누추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으며 짐승 먹이통(구유)에 뉘이셨습니다.

>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눅 2:7)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가난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지 못한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구유간에서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셨지만 부모를 위해 멋있는 집을 장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어머니 앞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신을 안치할 무덤조차 준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셨던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임신을 했지만 마땅히 자녀를 출산한 곳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용화장실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으니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입니까?

주님의 가난한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얻게 되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

나님을 누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억울함이 다소 해결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희망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 13:4-5)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 주는 일은 하인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땅은 맨 땅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에는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모욕적인 것이여서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님, 도저히 이 사람의 발은 씻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인께 고할 때에 주인도 하인에게 발 씻기는 것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낮아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5. 온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마 11: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란 말은 헬라어오 <프라위스>입니다. 이는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인정이 많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트어의 <프뤼온>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는 '사랑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온유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잔인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향해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마 12:19-20)

주님은 늘 죄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눅 7:34)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과 가까이 할 때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꺼려했으며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주님의 온유함은 참으로 크셨습니다. 주님은 은 삼십 세겔을 받고서 주님을 팔아넘긴 가롯유다에게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롯유다가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때에 군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가롯유다가 군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께 나아와 입을 맞췄을 때 주님은 가롯유

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마 26:49-50)

어느 누가 주님처럼 원수된 자를 친구로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온유함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시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군사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눅 23:34)

6. 순종적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늘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아버지의 음성대로 사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의 세 개의 구절은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

주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만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자의로 말하거나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본 것과 들은 것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맘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주님의 순종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순종심이 어찌나 크시던지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십자가

의 고난이 가볍거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었기에 달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었던지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길 꺼려 하셨습니다.

>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 서신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드려주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의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최선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7.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골방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골방기도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골방기도를 드리기 위해 새벽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시간을 이용하신 것은 홀로 한적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셨습니다. 새벽시간에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법이었습니다.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골방기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즐겨 사용했던 기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방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골방기도를 하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벽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에 나아 함께 기도를 합니다. 비록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지라도 충분히 골방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골방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에 충만한 골방기도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릴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기

1. 예수님의 7가지 성품을 대답해 보세요.

2.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비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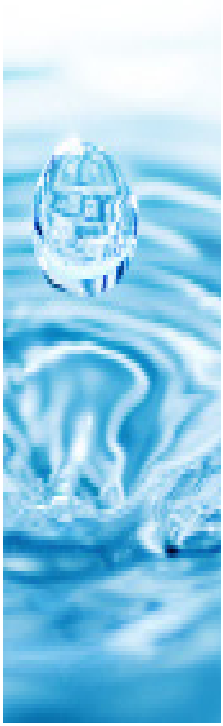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3.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당신의 결단을 이곳에 적어 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 장

/

예수님의 기도생활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생활 알기

1.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한적한 곳으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적한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은 혼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새벽기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새벽기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골방'은 헬라어 <타메이온>으로 '골방' 혹은 '밀실'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게서 골방을 말하실 때 그것의 의미는 홀로 거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윗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는 은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은 헬라어 <크뤼잎토스>로서 '숨음', '은밀한', '비밀의'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은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6:7).

>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

하나님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면 '골방'기도를 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골방'기도를 적극 권합니다. 그 어떤 추천도 예수님의 추천보다 더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 기도로 위기를 모면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화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음모에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판에 한가롭게 기도하시다니요?

>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 의논하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 6:11~12).

아닙니다. 그냥 한가롭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위험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어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곳 갈릴리 사람들이 화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3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 만이 유일하게 병고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취급한 예수님에게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눅 4:28~30)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까짓 위험을 모면하지 못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예수님은 100% 하

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으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지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나 나처럼 똑 같은 인간이셨다는 말입니다.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결코 단 한번도 자신을 위해 하늘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지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셨던 100%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어쩌면 당신보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건장하고 잘생긴 예수님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내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

성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한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위의 구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으며 풍체도 없으신 흠모할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 받는 나사렛 마을의 어느 보잘것없는 여인을 어머니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짐승들을 모아 놓은 마굿간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귀한 맏아들을 구유(짐승 먹이통)에다가 뉘이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가정의 생활은 너무나 형편 없는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평생토록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평생 집 한채 가져보지 못하고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제자에 의해 배신을 당했으며 몸 값은 노예를 살 때 지불되었던 금액인 겨우 은 삼십 세겔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이 로마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으며 누구 하나 함께 죽겠다고 달려든 제자도 없었습니다. 로마군인들로부터 침 뱉음과 뺨 맞음과 가시면류관의 갖가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해야 할 효도를 남의 자식(사도요

한)에게 어머니를 떠 맡겼습니다. 죽으셨어도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당신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당신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사해서 저들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선지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눅 4:24)

또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이려고 달려 들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정도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구원 받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닥친 것은 낭떠러

지는 아니었지만 불가마 속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죽이고자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궜지만 저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 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잖습니까? 살아남은 저들에게 위기를 극복할만한 능력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우리와 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셨을거란 생각은 낭떠러지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위기와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3.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1~13).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 열 두 제자

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 눈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 가셨지만 함께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잠시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6~39)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로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기도만큼은 홀로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음 날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

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39절)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하시며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 지실 것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예수님은 너무도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셔야 할 잔이 너무나 고난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땀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강한 영광체험을 하다 보면 어쩌다 온 몸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의 기운이 돋는 경우는 있지만 땀이 흘러 내린 경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도중 땀이 피방울처럼 흘러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방울>은 피가 굳어 엉겼을 때 큰 덩어리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가 흘러 내린 것이 아니라 마치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피덩어리처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피가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땀방울이 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님께서는 그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정리하셨고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실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4.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 눈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6~39).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로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기도만큼은 홀로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중보기도로 사람을 구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요 6장). 사람들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다 거둬들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거나 사역 후에 오는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험에서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마 14:22~25).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파도에 휩싸여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각에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는 교회에서 매우 유용하게 운용되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래 중보기도자는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사도요한은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간구를 통해 형제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16).

성령을 거슬려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만 제외하고는 죄에 빠져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요한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요한만 더 사랑하고 베드로는 덜 사랑하겠습니까? 귀한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6. 기도로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요 1:40)

안드레의 이름은 언급이 되었지만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갖고서는 언급되지 않은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20:31~32)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다름 아닌 사도요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은 제자들 중 유일하게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가 차마 부끄러웠던지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안드레가 수석제자 대열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있을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 따랐던 제자였는데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세배대의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마 20:20~21)

성경에서 엄마의 치맛바람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자신의 두 아들(야고보와 요한)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두 아들을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앉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아들은 제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화난 제자들을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27)

예수님은 세상의 정욕이 없으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에 욕심이 있으실리 없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성인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요 6:14)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 6:15)

그 즉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마 20:28) 이 땅에 오신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7. 영광체험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도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28~29).

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눅 9:27)

아마도 변형의 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갖고도 예측은 불확신합니다. 그래서 변형의 산에 관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의 같은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막 9:1)

마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 역시 같은 단어인 <두나미스>로 써져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권능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단순한 성령세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말한다면 권능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증인이 되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는커녕 동네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말씀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기름부음심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에 취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저들의 입에선 방언이 나왔으며 권능의 말씀을 전해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회개의 영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 제자들을 기도에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변형의 산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혹 변형의 산 자체가 누구든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영광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그리고 그영광 체험하는 동안 예수님의 옷은 빨래로 아무리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져 있었고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막 9: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광체험을 왜 지겨운 씨름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황홀한 기도를 왜 한 순간이들 마다 하셨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행 22:17)

이 구절은 바울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몽사몽>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입니다. 이 단어를 비몽사몽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거나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비몽사몽>의 단어를 <trance>로 번역해 놓았는데 <입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엑스타시스 estasy>라는 단어는 현재 영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듯이 <무아의 경지, 황홀경, 환희의 절정>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했다는 말은 기도의 무아경지에 올랐다는 말이며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황홀경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에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신약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행 10:2~11)

신약성경에 <엑스타시스>가 <황홀함>이란 뜻으로 단 두 군데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

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쌍벽을 이뤘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렀으며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런 두 사람 모두 <비몽사몽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중얼거린다고해도 황홀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황홀해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비몽사몽한> 기도는 영의 기도 입니다. 이것은 육의 기도나 혼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해서 두 사람의 능력을 대표할만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

>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에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행 5:15~16)

두 사람 모두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이 치유되었으며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저들에겐 예수님 못지 않는 큰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들은 그런 큰 권능을 받았을까요? 바로 영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들의 영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능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당신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처럼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게서도 영광체험을 하셨듯이 당신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영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체험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으며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닮기

1. 예수님의 행하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2. 당신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드리신 골방기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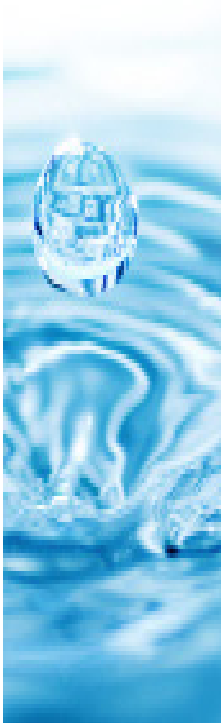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3.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하셨는데 당신은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 장

/

예수님의 생활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생활 알기

1.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아버지께서 예수께 어떤 지시를 한 내용에 순종하셨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신 내용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와 대화를 자주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간간히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삶에서 하루종일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도 부부사이에 하루종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는 사이에는 도무지 대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을 쉬는 날에도 하루종일 대화를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루종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아버지와 간간히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만 듣고 그 말만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와 감정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까?

3.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

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닮기

1.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알아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생각해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무시로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단계

구원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보다는 오히려 타락되고 변질된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믿음의 행실들은 천국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4 장

/

나는 어디서 왔는가?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1. 나는 하나님의 형상(Image)과 하나님의 모양(Likeness)에 따라 태어났습니다(창 1:26, 히 12:9).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며 참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육체에 갇히지 않으시며,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형상'<첼렘>과 '모양'<데무트>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거룩한 속성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형상'<첼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드러내는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모양'<데무트>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지혜와 사랑 같은 내면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세상의 물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과 영적 성품을 온전히 담아내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받은 고귀한 걸작품입니다.

2.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욥 38:4-7, 잠 8:22-31).

인생이 죽음을 건너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자 영원한 쉼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8: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 8: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 8: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 8: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 8: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잠 8: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온 우주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지으신 '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의 기쁨과 영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거처할 땅을 예비하시고 장차 이 땅을 밟을 인생들을 깊이 기뻐하셨습니다.

>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광대한 우주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과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태초의 영광과 설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롭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렘 1:5, 갈 1:5, 엡 1:4-5, 롬 8:30).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그를 깊이 품고 아셨으며, 사도 바울 역시 태에서부터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렘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울을 향한 특별한 뜻을 품으셨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호흡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를 이미 가장 깊은 언약적 사랑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출생과 부르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증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사슬입니다. 영원 속의 예지와 예정에서 시작된 그분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완성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의 존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소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서 있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1.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의 존재가 우연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자녀임을 믿습니까?

2.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당신이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위로와 힘을 줍니까?

3.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기지 않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 확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당신의 내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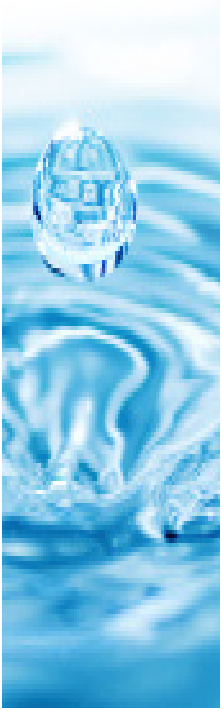
5.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깊이 아시고, 당신의 삶을 구체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품고 계셨음을 믿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5장

/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이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1.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사 43:7).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2.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태어났습니다(사 43:21).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찬양보다 나의 찬양을 더 듣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금 144,000명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144,000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며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144,000명은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그 누구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3)

'새 노래'라는 것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나를 위해 부르는 찬양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만이 '새 노래'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만이 부를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은 곧 144,000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 같기도 하며 거문고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계 14:2)

이러한 사도요한의 '새 노래'에 대한 표현은 그 노래가 세상적인 노래와는 다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노래소리는 사도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 노래'가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노래 또한 부르지 못합니다. 저들은 영적인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노래 또한 즐길 수 없습니다. 이는 '새 노래'의 특성이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방언'입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방언기도를 통해 영적인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은 이러한 방언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보다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던지 아예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방언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

바울은 방언기도를 통해 방언찬양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방언찬양이 영으로 찬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찬양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녹음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바울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전혀 바울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단계인 것입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

바울은 혼적으로 기도하는 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기도단계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혼적인 찬양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찬양단계가 있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은 혼적인 찬양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육적인 노래 수준보다야 훨씬 뛰어난 단계이겠지만 영적인 찬양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단계일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알아야 보다 쉽고 빨리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뛰어난 선생이십니다.

3.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벧전 2:9).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십니다.

>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1.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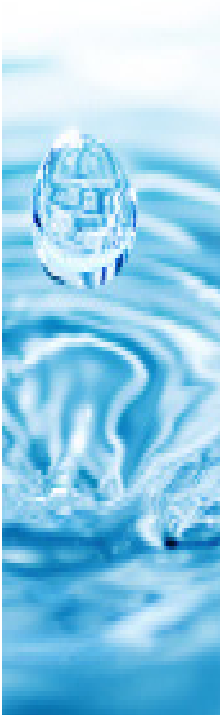
3.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세상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찬양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6 장

/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1. 나는 죽은 후에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전 12:7, 히 11:4-7).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100년 안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욱 가까이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전 7:4)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지를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 에덴동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을 거하게 하셨고 에덴동산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에덴동산은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에덴동산이 행복했던 이유는 죽음의 고통과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존재로 거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가꾸는 노동의 참

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담에게는 죽음의 공포도 없었으며 생계에 대한 염려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배필이 없었음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먹을 것이 풍족했으며 죽음의 걱정도 없었던 에덴동산은 그야말로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3. 복천년

하지만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에덴동산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에덴동산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3)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천년 기간동안 이 땅은 에덴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복천년 기간동안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복천년의 상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65:17-25)

복천년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복된 회복의 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평화와 회복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천년왕국의 통치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며 노래한 것입니다.
복천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모두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사야가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을 위한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황폐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2-13)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힌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땅이 에덴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천년은 천년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년은 영원한 나라이지만 복천년의 기간은 천 년입니다. 천 년동안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의 누릴 축복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복천년 때 누릴 축복도 큰 것이지만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천년 때 백 세가 되기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는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장수하는 삶을 누립니다(사 65:20-22).

>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 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 65:20-22)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각 개인마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 65:21)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여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복천년 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사 65: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사 65:23)

하지만 천국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복천년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천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4)

하지만 천국에서는 음성을 듣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도 없고 싸움이나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사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65:25)

이러한 복천년의 모습은 에덴동산의 재현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축복된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 천국

사도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세계임을 보았습니다.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또한 그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복천년 때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사 65:18-19).

>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 65:18-19)

하지만 복천년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

니다. 복천년 때의 모든 누리는 복이 천국의 복에 대한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복천년 때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막은 이 땅에서의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장막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 8:5)

그래서 천국의 '장막'과 구약의 '성막'의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의 장막에 사용되는 <스케네>라는 헬라어는 구약의 성막에 해당되는 <미쉬칸>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성막과 천국의 장막을 동일선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성막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성막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천국의 공기는 '믿음'입니다. 천국 어디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숨을 쉴 수 있듯이 천국에서는 믿음을 취하며 살

아갈 것입니다.
천국은 소망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부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천국의 삶에는 소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사랑으로 가득찬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채워진 나의 심령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취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1)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도성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2)

새 예루살렘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며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 21:24)

'만국'은 천국에 거하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는 각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5. 낙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낙원에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낙원은 성도가 육신의 생명을 마친 후, 주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품에서 누리는 복된 안식의 처소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낙원이 천국의 예비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록 천국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미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곧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썩어질 육신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지나

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음으로써 완성된 천국에 온전히 참예하게 되는 것입니다.

>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낙원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육신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 주님 품인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천국'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선한 자는 낙원에 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선한 자입니다.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

강도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낙원에 거하는 것은 곧 천국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복천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자신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낙원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3)

하지만 저들은 심판 후에 곧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4)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15)

6. 음부

음부의 개념도 낙원의 개념과 같습니다. 때가 되어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에 거할 자들은 지금 음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 음부와 지옥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진정한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음부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지만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눅 16:22-23)

음부에 거한 부자는 때가 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부활한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7. 지옥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10)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유황불' 혹은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 반대의 개념이지만 영원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영원하듯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

비록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위대한 공헌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갑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와 내 가족은 에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입니다. 그리

고 나와 내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내 가족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1. 당신은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까?

2. 당신은 '본향'이라는 말이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까?

3.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죽지않고 살아서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합니까?

4. 당신을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5. 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6.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단계

하나님을 아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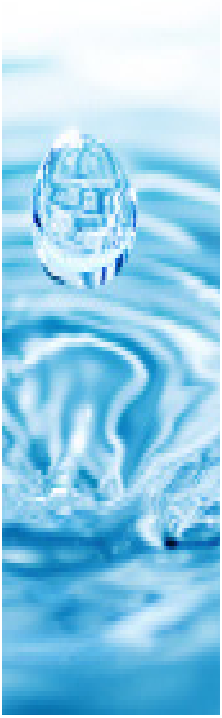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하나님이십니다.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성부하나님 안에 성자예수님이 계시고 성자예수님 안에 성령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하나님께서도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성령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하나님께 우리도 삼위일체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장

/

하나님의 속성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알기

1.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단 한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 문은 너무나 두껍고 무거워서 여간해선 잘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기 위한 방안으로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철야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좀처럼 하나

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무엇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2. 일방적인 사랑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일방적인 사랑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일방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랑은 서로 나눠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눠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강압적인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함

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3.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철부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와의 너무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큰 아들보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수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큰 아들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아갔음을 말해줍니다. 혹자는 "목사님,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단 한번도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아

들과 탕자와의 차이였습니다.

>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눅 15:17)

탕자는 배고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탕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지금껏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던 파렴치한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자와도 가까이 하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 오랜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런 삶의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탕자처럼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큰 아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테니까 말입니다.
탕자를 먼 발치에서 날마다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맞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정직하게 돌이키십시오.

4.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사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까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문밖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당신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고 큰 소리 내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정중하고도 다정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때 주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5. 문은 곧 영(spirit)입니다

당신이 열어야 할 문은 당신의 '전인격적인 중심(Heart)'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이 밝아지고, 우리의 메마른 감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며, 우리의 굳은 의지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혼의 영역으로 문을 연다고 할찌라도 당신은 결코 주님과의 교제를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먹고 더불어 마시는' 심도높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열어야 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당신과 만나시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영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너무 충격적입니까? 충격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십시오. 대충 이해하지 마시고 아주 강력한 충격이 당신의 심장을 강타하는 것처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할수록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잘 맺게 됩니다

5. 영이 열리기 위한 조건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도 새로운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지조차 생소하게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약에 당신이 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신의 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육은 오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글을 읽

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코는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입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피곤하기도 하며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육입니다. 오감을 통해 당신의 육은 계속해서 육적인 영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혼입니다. 당신의 혼적 영역은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식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학공식을 암기하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지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신의 지식은 수많은 지적인 데이타들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부분은 당신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당신이 '당신됨'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줍니다. 당신의 혼적인 영역이 풍성할수록 당신은 '육적인 인간'이라는 말보다는 '품위있고 교양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명예는 모두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카데고리 속에 빠져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 발달되면 될수록 당신의 영적인 영역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육적인 영역이 강하거나 혼적인 영역이 강할 때 당신의 영적인 영역은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은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은 교육받기를 좋아하고 교양있게 살

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그 본질을 따져 보면 모두가 세상의 자랑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높은 지위를 탐하고 세상의 권세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든 욕망들이 사실 썩어질 육신을 아름답게 회칠하는 것밖에는 저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할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달은 사도요한은 자신의 기록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일단 당신의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당신의 것들을 살펴 보십시오. 그런다음 당신의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을 제하고 남은 것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과 함께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을 모두 제한 다음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나눌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열심히 교회모임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열

심히 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눌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매우 혼란스러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헌신들이 주마등처럼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혼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혼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영역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6. 육과 혼을 버리는 조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당신은 오직 영적인 영역만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의 육과 혼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버리십시오. 이것은 '먹음직 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많이 먹는 '식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사역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사업을 탐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보암직 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사업체를 보면서 그 사업체가 탐이 나서 자신의것으로 갖고 싶다는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서 자신의 여자로 삼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보고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괜히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자신보다 잘 살면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낮은 직책에 있으면 친구지만 나를 제치고 승진하면 원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내 남편이 먼저 승진해야 하고, 무조건 내 자식이 먼저 합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탐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지위에 대한 욕망과 권세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동네 반장이 되고 싶어하고 통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욕망입니다. 군수나 시장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세상의 최고 자리인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친구도 버리고 식구도 외면하는 인간이 이 부류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지위를 주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마귀와는 교제를 나눌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7. 육과 혼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육이 있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혼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혼이 있습니다.
만약에 육과 혼을 버리라고 해서 육을 버릴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남을 장소가 없기때문에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육과 혼을 버리라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좇아 온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체와 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육체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혼적인 영역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이 잘 갖춰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속한 육과 혼의 영역이 발달되어 집니다. 하지만 영의 영역이 잘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육과 혼의 영역으로 발달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쟁하듯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7.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영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당신의 영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문을 열도록 기다리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영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어떻게 열 수 있냐고요? 세상의 육과 혼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는 사모함을 간직하십시오. '의지'는 혼적인 것이지만 '사모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늘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모함'이 강한 사람은 늘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따질 것같은 모습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이라도 꾸셨나요?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지 마세요. 오히려 꽃이 좋아 꽃을 찾아가 꽃내음을 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돌아가신 주님이 그리워 시신을 안치해 놓은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당신 삶의 전부인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가진 것을 타 털어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베다니 마리아처럼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의지'는 이익과 연관된 것이지만 '사모함'은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세상에서는 빈 털터리지만 천국에서는 다 가진 자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버리는 것이 영의 문을 여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알기

1. 당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지금껏 당신이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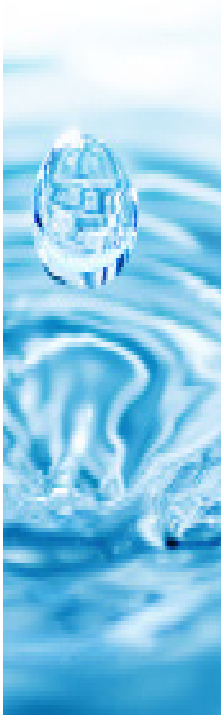
3. 하나님의 속성을 앎으로써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8장

/

삼위일체 하나님 알기

삶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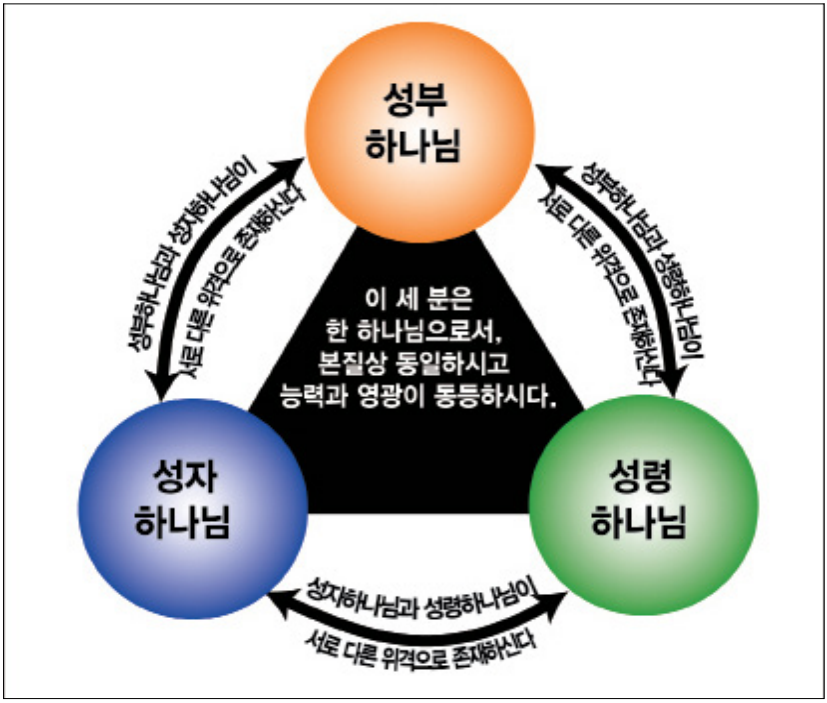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알기



1.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구별된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 이론 중 하나는 '삼위삼체' 혹은 '삼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세 명의 서로 다른 신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신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약성서의 계시를 이어 신약성서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위격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은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세례를 받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마태복음 28장에도 선명히 나타납니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9).

2. 삼위일체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흔히 범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오류는 세

위격의 구별을 없애고 한 분이 상황에 따라 역할만 바꾸어 나타난다고 보는 '양태론(Modalism)'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결코 혼합되지 않는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며,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요14:16~17).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는 온전한 위격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구별된 세 위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행 7:55)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의 관계 또한 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요14:26).

성령하나님을 또 다른 형태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3. 삼위일체하나님의 동등성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조들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신조는 니케아신조(AD325년)와 콘스탄티노플(AD381년)입니다. 니케아신조에서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니케아신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리우스(Arius)파의 주장을 배격하기 위한 것인데 '성자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신조는 니케아신조에다가 성령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예배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삼위일체하나님 이해하기

1.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2. 지금껏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3. 제자멘토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9 장

/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 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 알기

1. 세 하나님의 하나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은 성부하나님 안에 성자예수님이 거하시고 또한 성자예수님 안에 성부하나님이 거하시는 매우 독특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둘이 아닌 완전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성부하나님께서 성자예수님 안에서 스스로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러한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이해는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성자예수님은 성령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하나님 안에서 잉태되셨으며 출생하셨습니다. 일생동안 성령하나님 안에 거하셨으며 성령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과 뜻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혼합될 수 없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구별되시면서도 온전히 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2. 우리와 연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도 삼위일체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부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 "[요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으사 은혜로 부르셨으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삼위일체하나님과의 관계맺기

1. 당신이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이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3. 당신으로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4단계

말씀과 동행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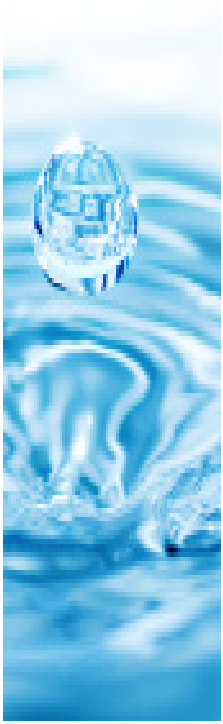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지 않으면 보낸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을 뜻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

성경에 대해 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대해 알기

1. 성경이란?

1). 성경저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 구약성경: 약 30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 신약성경: 약 9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2) 성경기록: 성경은 16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렇게 긴 세월동안 성경이 씌여졌지만 성경 내용은 한결같이 구원의 계시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령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딤후 3:16).
- 구약성경: 대략 1000년 기간에 걸쳐 쓰여졌다.
- 신약성경: AD100 내에 쓰여졌다.

3) 성경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다.
-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다). 아람어는 포로시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온 바벨론 지방의 언어이다. 포로귀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달리다굼"이나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같은 말은 모두 아람어이다.

-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된 언어가 "코이네"라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 차원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4) 성경구조:

- 성경(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 모두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73절(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의 장절(章節 : chapters and verses of Bible)은 1555년 라틴어 성경 때 최초로 만들어졌다. 오늘날의 성경은 1560년판인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 드렸다.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명칭은 대략 2세기 말부터 불려졌다. 이는 모세의 언약(출 24:8)과 새언약(눅 22:20)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구약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내용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이후의 기록이다.

5) 성경역본

- 최초본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며,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필사본을 기록하였다. 필사본은 인쇄술이 발명된 15세기까지(1455년 정도) 사본으로 각 지역에 전해졌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의 사본은 대략 5천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바티칸사본(B), 시내사본(a) 등이 유명하고 4-9세기 것으로는 대략 40여개가 된다.
- AD397년(카르타고 총회)에서 신약 27권이 구약 39권과 더불어 공식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희랍-유대인' 정경인 70인역(BC150): 히브리어 성경이 최초로 그리스(희랍)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 39권과 희랍어로 쓰여진 외경 7권이 포함되어 있다. 팔레스티나 유대인 정경(BC 90): 유대인들의 얌니아 회의에서 70인역본의 외경 7권을 배제시켰다. 이유는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히브리어 39권만 채택했다.

2.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표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요 5:39).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요 6:35).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저자

- 구약성경: 약 30명
- 신약성경: 약 9명

성경기록

- 구약성경: 대략 1000년간
- 신약성경: AD100년 이내

성경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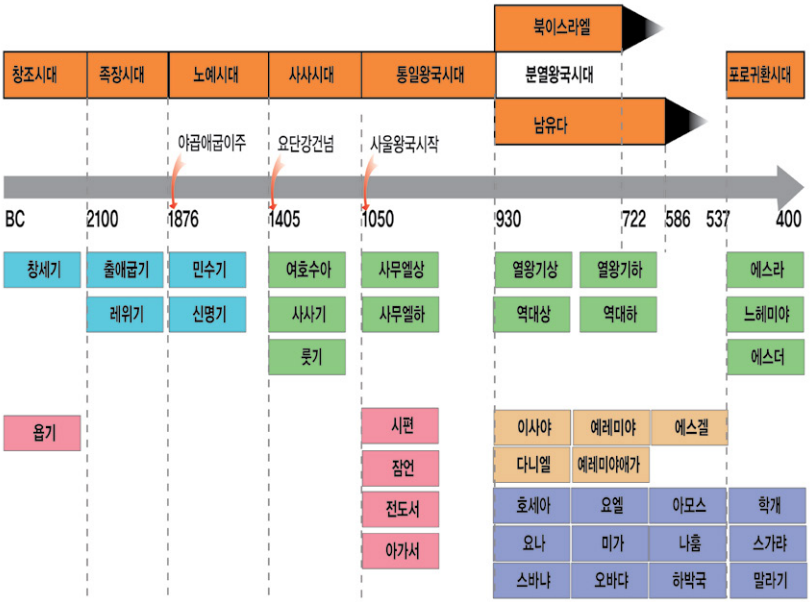
- 구약성경: 히브리어(극히 일부는 아람어)
- 신약성경: 헬라어

성경구조

- 성경(66권): 구약(39권), 신약(27권)
- 장(1,189장): 구약(929장), 신약(260장)
- 절(31,173절): 구약(23,214절), 신약(7,959절)

성경역본

- 최초본: 모세의 돌판
- 사본: 바티칸사본, 시내사본을 포함하여 총 5,000여개
- 정경채택: 397년 카르타고 총회에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Pentateuch)은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다섯 책을 말한다.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내용을 담은 구약성경을 말한다.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와 지혜문서에 속한다. 모두 시문체로 기록되었지만,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들이다.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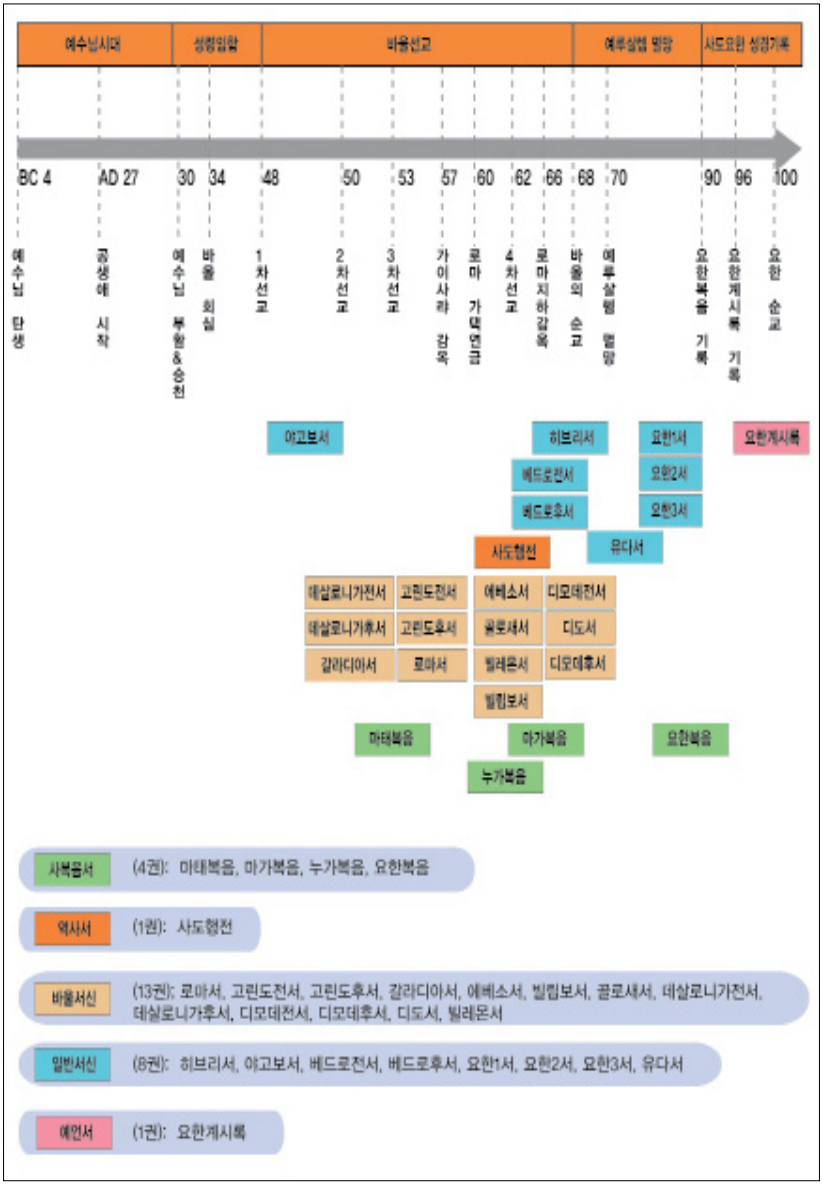
대선지서는 비교적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모은 것이다. 예레미야애가는 분량이 작지만 예레미야가 쓴 것이기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시켰다.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에 비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된 것이다.

구약성경 구분하기

분류		성경	장수	약어	기록연대(BC)	기록저자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50	창	1450-1400	모세
		출애굽기	40	출	1450-1400	모세
		레위기	27	레	1450-1400	모세
		민수기	36	민	1450-1400	모세
		신명기	34	신	1410-1395	모세
역사서	신정시대	여호수아	24	수	1370-1330	여호수아
		사사기	21	삿	1000	사무엘?
		룻기	4	룻	1011-931	사무엘?
	왕정시대	사무엘상	31	삼상	1050-931	사무엘?
		사무엘하	24	삼하	1010-931	갓과 나단?
		열왕기상	22	왕상	561-538	예레미야?
		열왕기하	25	왕하	561-538	예레미야?
		역대상	29	대상	450-400	에스라?
		역대하	36	대하	450-400	?
	포로귀환시대	에스라	10	스	458-444	에스라
		느헤미야	13	느	420	느헤미야
		에스더	10	에	458-435	에스더
시가서		욥기	42	욥	구약시대때	?
		시편	150	시	1450-1000	다윗 외 6명
		잠언	31	잠	1000-700	솔로몬
		전도서	12	전	935	솔로몬
		아가	8	아	900	솔로몬
예언서	대선지서	이사야	66	사	745-680	이사야
		예레미야	52	렘	627-580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5	애	586-585	예레미야
		에스겔	48	겔	583-571	에스겔
		다니엘	12	단	605-530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	14	호	790-710	호세아
		요엘	3	욜	830-400	요엘
		아모스	9	암	760-753	아모스
		오바댜	1	옵	848-841	오바댜
		요나	4	욘	760	요나
		미가	7	미	735-698	미가
		나훔	3	나	663-621	나훔
		하박국	3	합	609-589	하박국
		스바냐	3	습	640-630	스바냐
		학개	2	학	520	학개
		스가랴	14	슥	520-470	스가랴
		말라기	4	말	516	말라기


예수님시대
성령임함
바울선교
예루살렘 멸망
사도요한 성경기록
BC 4
AD 27
30
34
48
50
53
57
60
62
66
68
70
90
96
100
예수님 탄생
공생애 시작
예수님 부활&승천
바울 회심
1차선교
2차선교
3차선교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가택연금
4차선교
로마지하감옥
바울의 순교
예루살렘 멸망
요한복음 기록
요한계시록 기록
요한 순교
아고보서
히브리서
요한1서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요한2서
베드로후서
요한3서
사도행전
유다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1권):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일반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예언서 (1권):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구분하기

분류		성경	장수	약어	기록연대	기록저자
복음서		마태복음	28	마	50-70	마태
		마가복음	16	막	65-70	마가
		누가복음	24	눅	61-63	누가
		요한복음	21	요	80-90	사도요한
역사서		사도행전	28	행	61-63	누가
서신서	바울서신	로마서	16	롬	57	바울
		고린도전서	16	고전	55-56	바울
		고린도후서	13	고후	55-56	바울
		갈라디아서	6	갈	56	바울
	옥중서신	에베소서	6	엡	62	바울
		빌립보서	4	빌	60-62	바울
		골로새서	4	골	61-63	바울
	재림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	살전	51-53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3	살후	51-53	바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6	딤전	66-67	바울
		디모데후서	4	딤후	66-67	바울
		디도서	3	딛	63-65	바울
	옥중서신	빌레몬서	1	몬	60-62	바울
	일반서신	히브리서	13	히	64-67	?
		야고보서	5	약	45-49/60	야고보
		베드로전서	5	벧전	62-64	베드로
		베드로후서	3	벧후	62-64	베드로
		요한1서	5	요일	85-96	사도요한
		요한2서	1	요이	85-96	사도요한
		요한3서	1	요삼	85-96	사도요한
		유다서	1	유	60-80	유다
예언서		요한계시록	22	계	90-96	사도요한

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1. 성경은 모두 몇 권이며 구약과 신약은 몇 권씩 이뤄졌습니까?

2.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3. 구약의 시대적인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4. 신약의 시대적인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5.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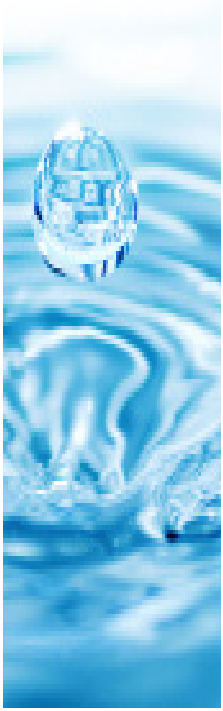
6. "앞으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정합니다" (결단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1장

/

성경묵상
나누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경묵상 하기

1. 하나님과 일대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성경묵상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똑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묵상은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출 25:22, 민 7:89).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마 27:51).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히 10:19-20).
우리는 성경묵상을 통해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5:39). 이처럼 성경묵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2. 성경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기도를 드립니다.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준비기도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심령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3. 찬양을 부르십시오.

필요에 따라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성경묵상을 할 경우엔 찬양을 부르면 좋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처한 장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4. 말씀읽기

본문을 여러번 읽습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정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독으로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며 본문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5.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찾으십시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마치 숨은그

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읽을 땐 보이지 않지만 주목하여 글을 정독할 때에 숨어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았으면 성경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여백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6.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성경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묵상을 할 때에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김집사나 이집사에게 해당된 말씀은 잘 듣는데 정작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 삶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

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묵상 나누기

1. 성경묵상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2.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묵상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3.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묵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4. 성경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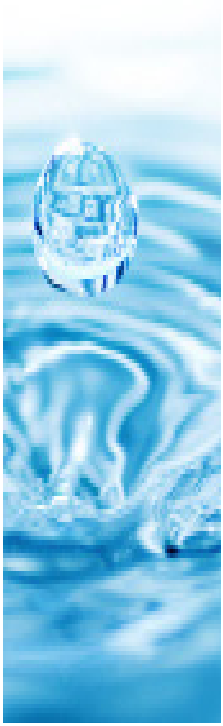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6. 당신은지금까지 성경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2 장

/

영성일지 쓰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성경묵상 나누기

1. 영성일지를 기록합니다.

성경묵상을 했으면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머리로 묵상하고 실천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성일지를 쓰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영성일지를 씀으로써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영성일지?

1) 영성일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영성일지는 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하루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영성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일지도 하루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영성일지와 일기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

라집니다. 일기는 다소 세상적인 일상생활의 내용을 담는 것이지만 영성일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 내면의 세계가 정리되고 다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성일지를 쓸 때엔 심령이 열려지고 영혼이 정리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쓰여진 일기를 읽을 때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지만 쓰여진 영성일지를 읽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첫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 영성일지에는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읽을 때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하며 늙어짐을 못내 아쉬워하지만 영성일지를 읽을 땐 날마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사랑의 마음을 성경에 온전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바울은 편지를 참으로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깨달음을 편지에 썼고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는 항상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보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2) 영성일지는 24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깨닫는 것이나 일어난 사건이나 놀라운 체험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성일지는 하나님과 나누는 데이트입니다. 주님과 데이트를 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주님의 모습만 봐도 즐겁습니다. 세상의 환란과 역경이 다가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힘이 납니다.
영성일지를 쓰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느낍니다. 손을 내 밀면 내 손을 잡을 것 같고 내가 기대면 어깨를 내 밀어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깊은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 연약함과 아픔을 가장 온전히 알고 계시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코스모스 길을 걸을 때 주님도 코스모스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넓은 들판에서 두 팔을 벌리면 주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가지고 오셔서 내 볼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그네를 탈 때에 주님은 내 등을 밀어주십니다.
주님과 나는 한 이불 속에 같이 잠을 잡니다. 일어나면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실 때 주님은 향기로운 커피냄새와 함께 내 숨결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운전할 때에도 주님은 안전벨트를 맸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영성일지를 쓸 때 주님과 나눈 데이트 장면들이 떠오르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 더 이상 일기를 쓰고 싶지 않지만 영성일지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3) 영성일지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도 남기고 싶고 내 몸에도 남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일지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영성일지를 보면 잠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영성일지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영성일지는 그렇게 '흔적'이 되어 나와 주님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3. 영성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쓰나요?

1) 성령님과 동행한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신 거룩한 감동과 깨달음을 떠올려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확신을 주십니다(롬 8:16).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 8:16)

이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미세한 음성과도 같습니다(왕상 19:11-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1-12)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조용히 머리를 숙일 때,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신 거룩한 소원과 감동들을 차분히 적어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과 같은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떠올려봅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꿈해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단 7:1). 속사람(영)이 활성화될 때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엔 보여진 환상을 떠올려보고 보여진 환상에 대한 해석을 성령님께 여쭤봅니다.
성령님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대화'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중요하듯이 성령님과의 교제에서도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하루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습니다.

하루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행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떠올려 봅니다. 믿음의 선포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도 삶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한 믿음의 행동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동안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합니다. 마치 베드로나 바울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와 같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역사들도 사실은 매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전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선포를 했더

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향해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갑자기 수도꼭지의 문제가 해결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몸에 손을 얹고서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갑자기 아픈 부위가 안 아플 수 있을 것입니다.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4-16)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을 기록합니다. 배우자가 변화되었다거나 자녀가 변화된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가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변화된 것들을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엔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회개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시 51:9-11).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9-11)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7)

더욱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습니다(마 22:39,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20)

만일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며 주님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적어도 좋습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살펴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마

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기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1-42)

영성일지 쓰기

1. 영성일지와 일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2. 영성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3. 영성일지는 왜 중요한가요? 당신은 앞으로 영성일지를 쓴다고 약속합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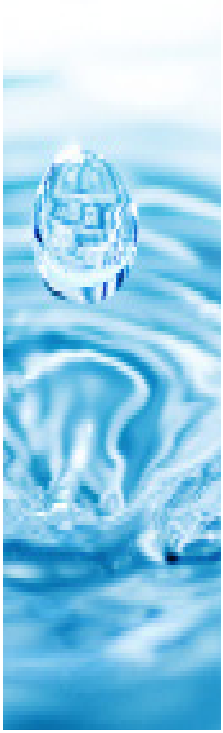
기도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함을 토로했던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마 6:6). 골방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은밀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골방기도는 성막기도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성막의 성물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기도법인 성막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듯이 우리도 성막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13 장

/

골방기도 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골방기도 알기

1. 주님께서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

주님께서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는 골방기도가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드려지는 은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방기도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적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1시간 정도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과 세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님께서도 골방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골방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1:35)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거동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온전히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3. 골방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33:11)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 7:89)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 편을 드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 12:8)

모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대면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골방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1-12)

골방기도 이해하기

1. 왜 주님은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을까요?

2. 골방기도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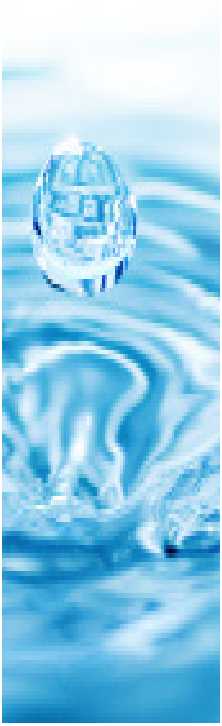
3.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4 장

/

성막기도 드리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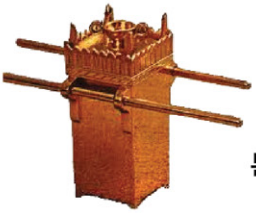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성막기도순서

(8단계) 하나님 영광체험

언약궤

(7단계) 방언기도-방언찬양



분향단

(6단계) 성령님 인도하심 요청

정금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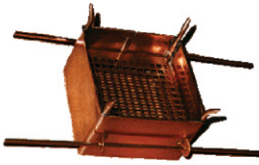
(5단계) 간구-선포-감사기도

진설병

물두멍

(4단계) 죄의 회개

번제단



(3단계) 산제사로 드림(영적제사)

성막문
(2단계) 신앙고백

(1단계) 보혈 뿌림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막기도 드리기

"이 글은 새로운 신학이나 절대적인 교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약 성막의 모형을 기도의 여정을 돕는 하나의 '영적 안내도(지도)'로 삼아 정리한 실천적 나눔입니다.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영광의 깊이는 다를 수 있으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길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은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한 놀라운 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늘에 있

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듯이 천국에서도 성막을 통한 정결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의로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 고백함으로 성막문을 통과하십시오

성막문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베실)로 짠 문입니다. 성막문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

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14:6). 앞서 설명했듯이, 성막문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기도의 장소와 당신 몸에 뿌린 다음 성막문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막문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막문이 열리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막문이 열리도록 다음의 네 가지 주님의 속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때 고백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막문이 열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번제단에서 자아를 죽이십시오

열린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헌신'을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죽이십시오. 짐승이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지는 당신을 보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 불태워짐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 앞에서 성도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직도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옛 자아와 세상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헌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4.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십시오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했다면 다음 단계는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당신을 사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을 것이며 당신 코에서 콧물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자가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5. 진설병에서 간구-선포-감사기도를 드리십시오

물두멍에서 회개가 이뤄졌다면 당신은 이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제 담대히 성소에 나아가십시오. 성소는 회막으로 덮혀 있습니다. 그 회막은 네 개의 천으로 덮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막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회막은 성막 안에서도 또 한번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번제단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며 물두멍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비록 당신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참경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경배자가 되려

면 회막안의 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설병은 '얼굴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이는 얼굴을 뜻합니다. 우리는 진설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서로 만나게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제목을 아뢰세요. 기도제목을 놓고 간구하세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육적인 양식도 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을 믿고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후에 간구제목이 이뤄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6.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주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사항을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 시간부터 영의 기도를 준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부탁하

는 것입니다.

7.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분향단은 너무나 중요한 성물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분향단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정금등대)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이 했던 이 구절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 곧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영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의지로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방언을 받을 때는 의지보다는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을 때 방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방언기도를 할 때는 의지적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작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방언을 하다보면 어느새 내 영이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인간의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방언기도를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한 가장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해 보십시오. 속도를 빠르게 해 보십시오. "랄랄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방언찬양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언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찬양소리를 듣게 되며 천사의 찬양소리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8.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방언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이 커짐을 느끼면서 고요함이 밀려 옵니다. 그렇게 방언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방언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천사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황홀한 시간입니다.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환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이 커짐을 느끼면서 고요함이 밀려 옵니다. 그때 천상의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환상이 열리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

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별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9.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후에 당신은 언약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속죄소에서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고요함을 느낄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 섰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입니다. 당신은 속죄소에서 주님의 피를 뿌리셔야 합니다. 피는 당신 몸에 뿌리십시오.
처음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는 손으로 직접 당신 몸에 뿌렸지만 속죄소 앞에선 당신 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입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 숨은 쉬셔야겠죠... 당신 육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찬양도 없습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영만 활동하게 됩니다. 속죄소 앞에서 주님의 보혈

을 뿌리게 되면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개의 그룹이 당신을 언약궤로 내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 사이를 통과하여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영은 기쁨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언약궤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입니다(히 9:4). 돌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성경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말씀대로 들려 주실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롬 4:17)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롬 4장, 히 11장). 만나 금 항아리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예수님의 치유의 빛과 성령님의 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당신에게 밀려 내려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구름이 당신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것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코를 통해 온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피부조직이 구름과 닿아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광선이 당신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선은 그곳에 계속 비추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 광선이 작은 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당신 몸 속을 휘집고 다니면서 당신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를 태우고 더럽고 추악한 영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강건케 될 것입니다. 광선이 불이 되고 불을 아픈 부위에 옮기는 것에는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할 때 어느새 당신 가장 밑부분부터 성령의 불길이 치솟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 당신의 몸은 진동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당신은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과 빛과 불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영은 커져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의 기도의 시간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기때문에 너무나 좋을 뿐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아서 이곳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성막기도 체험하기

1. 성막기도의 순서를 교재없이 말해보세요.

2. 성막기도가 왜 강력한 기도인지 설명해 보세요.

3. 당신은 얼마나 성막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막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느낌은 어떠합니까?

4. 골방기도와 일반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차이는 무엇입니까?

6. 당신은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떠한 변화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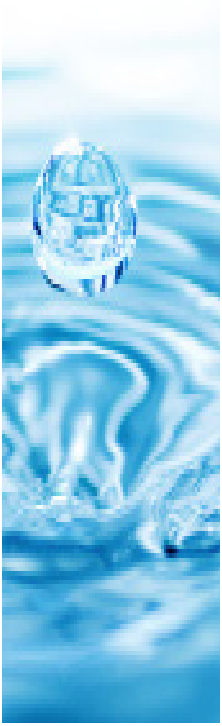
7.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성막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기도와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5 장

/

영의 기도 드리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영의 기도 드리기

1. 영의 기도란?

영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와는 달리 보다 영적인 단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기도는 다소 육적인 간구에 치중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간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놓고 떼를 쓰듯 간구하는 단계의 기도가 바로 '육적인 기도' 단계입니다. 영의 기도는 내 육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성숙한 단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혼적인 기도는 육적인 기도 단계를 벗어나 다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수준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에배드리는 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기도는 이러한 혼적인 기도 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에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기도하였을 때 모세에게는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2. 영의 기도를 드린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은 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행 10:2~11).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인데 이 단어는 '황홀함', '무아지경', 또는 '입신'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를 '입신(tran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드릴 때 무아지경의 상태나 입신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 역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행 22:17).

신약성경에 <엑스타시스>가 단 두군데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쌍벽을 이뤘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렀으며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런 두 사람 모두 '비몽사몽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중얼거린다고해도 황홀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황홀해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드린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저들의 능력은 모두 이러한 영의 기도에 의해 생겨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신 이유를 두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처럼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게서도 영광체험을 하셨듯이 당신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영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체험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으며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3. 영의 골방을 찾으라

성막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

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골방'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이 말은 '곳간' '밀실' '내실'을 뜻합니다.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직 4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도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독특한 단어인 '골방'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설명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강력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일평생 '골방기도'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 육의 골방

주님께서는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장소가 한적한 장소이며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 '골방기도'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방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골방은 은밀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2) 영의 골방을 찾으라

비록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다니시며 홀로 골방기도를 하셨지만 시간과 환경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기도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한 골방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나 산을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이나 철야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육의 골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골방'을 찾아야만 합니다. 영의 골방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골방을 말합니다. 육의 골방이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골방을 의미한다면 영의 골방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의 골방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골방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의 골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육의 골방에 나의 육신이 들어가듯이 영의 골방에는 나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을 인식해야만 합니다.아직까지 자신이 영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영의 골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육이 골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의 골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졌다고도 합니다.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영,혼,육으로 구분하지 않았을지라도 영과 혼과 육의 구분이 존재하다는 것을 그 누

구라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설적으로 삼분설이다 이분설이다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어떻게 우리의 영을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은 나 자신의 속사람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롬 7:22, 엡 3:16, 고후 4:16). 사람의 겉사람은 육과 혼을 의미합니다. 육은 몸(body)를 의미하며 혼(mind)은 지정의(인식, 감정,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spirit)은 육과 혼에서 구별되는 고유한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의 영역을 한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자신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모두 우리의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과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노력은 속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영적인 영역에 의존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들의 영적인 영역이 저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가장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과 혼의 영역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의 영역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고전 2:11). 우리의 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영을 깨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요일 4:15).

>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일 4:15)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4:13).

>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실 때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욕정들이 점점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육과 혼

의 정욕이 성령님을 통해 점점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롬 8:16).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4. 영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일단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기도'는 곳 '영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우리의 육신이나 혼의 영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영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천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영의 골방에서 더욱 현실화됩니다. 물론 육의 골방에서도 성령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바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육의 골방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5. 영의 골방의 활용

영의 골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5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아주 빠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수준이 높은 단계의 기도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의 골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리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처에서도 언제든지 그 정도의 짬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바쁜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홀로 있어야 합니다. 2-5분의 짧은 시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환경도 한적한 곳이면 최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의 골방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화장실도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냄새나고 다소 지저분한 장소이긴 하지만 영의 골방을 만들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일단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영의 골방을 자주 활용할 때에 이제는 뭔가 하고 있을지라도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영의 골방의 효과

이렇게 영의 골방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처럼 영의 골방을 통해 성령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확장되며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신유은사를 포함하여 각종 능력행함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언과 영분별을 포함하여 방언과 방언통변의 은사가 확장됩니다.
더욱 귀한 영의 골방의 효과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

낌을 갖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기도는 오직 영의 골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기도 체험하기

1. 영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2. 베드로와 바울이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육의 골방과 영의 골방의 차이는 무엇이며, 영의 골방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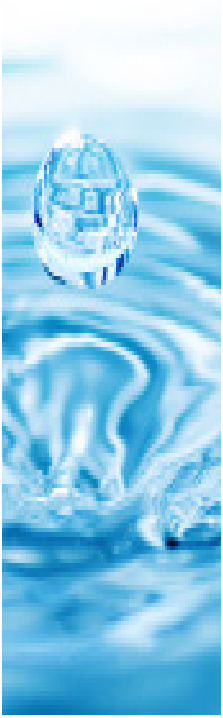
4. 만일 당신이 영의 기도를 드린다면 당신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6 장

/

하나님의 음성듣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듣기

1. 영광체험의 최고봉은 대화입니다.

모세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민 7:89, 출5:2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회막을 덮었으며 불기둥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비춰졌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으로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레 16:2).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레 16: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분명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속죄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우리 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성전에는 번제단도 있으며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혼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언약궤로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도 받고 더 나은 영광 체험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들었듯이 당신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평신도 아나니아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인 당신이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요 10:3). 듣는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음성을 못듣게 하는 마귀의 방해

1) 육신의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사 59:1-2).

>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 사망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망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망에서 헤매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요일 3:8) 마귀는 죄를 이 세상으로 불러 드린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 세상일에 분주한 사람입니다.

-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2)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귀의 방해공작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혼(mind)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선입견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 악한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 듣겠다는 위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3) 영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이뤄진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에 있어 전화로 통화하는 정도의 수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전화로 통화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출 3:5).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수 5:15). 우리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 산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 하나님의 음성듣는 12단계

1) 전혀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듣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힐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새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인척 모양을 내며 살아가는 앵무새와 같은 존재

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요 10:3).

>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 10:3).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이상한 이단학설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2) 음성을 들었으나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한 음성입니다(왕상 19:11-13).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왕상 19:11-13)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리를 듣는 곳은 우리의 '귀'입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해 매우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져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분주합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은 우리를 더욱 바쁘게 만듭니다(눅 10:40-42).

>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0-42)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의 모든 훈련은 '기도'입니다.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의 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

주님께서 행하셨던 골방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골방기도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워킹위드바이블을 통해 간단한 것이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워킹위드바이블을 통해 베풀고 계신 은혜인 것입니다.

3) 영감으로 느끼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영적인 감각)으로 느낍니다. 물론 부부가 말이 없이도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눈 부부는 훨씬 더 사랑이 깊습니다. 그러나 워킹위드바이블은 영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감이 나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감을 선호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번 말이 없어지 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말없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고 맙니다. 그러다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워킹위드바이블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려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볼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은사'가 '관계'보다 훨씬 두드러져 보입니다. 영감을 의존하는 사람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은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4) 짧은 단어를 듣는 단계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아주 짧막한 단어로 들려집니다.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들리기도 하고 '기쁨'이나 '헌신'같은 짤막한 단어가 들립니다. 이렇듯 짤막한 단어가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영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짤막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심령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5) 긴가민가 의심하는 단계

이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렵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마치 그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 영의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럴때면 마음에 '혹시 내 영의 소리 아냐?'라는 의심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님께 그 소리가 진짜 성령님의 음성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성경구절에 대한 해석을 묻는 것입니다. 묻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지만 성령님께 물으면 바로 해석이 들려옵니다.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거룩할수록 우리가 듣는 성령님의 음성은 더욱 정확해집니다. 성령께서 틀린 음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정확한 음성을 주시지만 내가 더럽기 때문에 잘못된 음성

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정결과 거룩해야 합니다.

6) 집중할 때만 듣는 단계

그렇게 짧은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 하나님의 음성듣는 훈련을 하다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뇌에서 음성을 듣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뇌 앞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뇌 위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분은 귀 안쪽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장소는 뇌 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 뿐 아니라 환상도 매우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뇌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단 7:1).
환상을 보는 장소 역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뇌 안에서 이뤄집니다. 물론 환상은 음성을 듣는 것과는 약간 다른 위치입니다. 음성 듣는 것이 뇌 중심 부분이라면 환상은 우리의 눈이 있는 부분으로 조금 앞 쪽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뇌 속에서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음성과 환상 모두 뇌 속에서 듣고 보여진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 물어 보는 것을 듣는 단계

성령님은 물어보지 않는 것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빨래를 할 때에 사용되는 장소도 아니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공부할 때 사용하는 장소도 아니며 TV를 볼 때 사용되는 장소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항상 성령님은 먼저 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그 장소로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먼저 내게 말을 꺼내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8) 서로 짧은 대화가 되는 단계

이렇게 성령님께 자주 여쭙다 보면 서로간에 대화가 오고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령님은 다 한 번도 저를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령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용서하셨으며 감싸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친절하셨으며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성령님께 죄스럽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대화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없는 부부사이처럼 성령님과의 대화도 매우 짧은 대화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짧은 것은 긴 대화에 비해 좋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가 길면 길수록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9) 긴대화가 이뤄지는 단계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는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긴 대화가 됩니다. 그러한 대화가 매일마다 이어집니다. 혹자는 "무슨 대화가 날마다 그렇게 길어요?"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령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오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10) 무시로 대화를 나누는 단계

이렇게 성령님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니 전형적인 성막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막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막기도를 제대로 못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기도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성령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하루종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삶의 형식이 사라졌습니다. 성막기도를 형식에 맞춰서 드리지도 못하였고 예배도 준비없이 서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하고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엡 6:18).

11)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듣는 단계

이렇게 눈을 뜨고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다보니 일상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영성일지를 읽고 댓글을 달면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안듣거나 사람에게 말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대로 행동하면서도 성령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환상보는 것도 눈을 뜨고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인도따라 해 보니 가능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

성령님과 하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끊지 않으면 성령님도 없습니다. 세상을 끊어야 성령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세상과의 근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멀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세상을 떨쳐 놓으려신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나의 믿음 알기

1.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2. 당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5. 하나님의 음성듣는 12단계에서 현재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6단계

권세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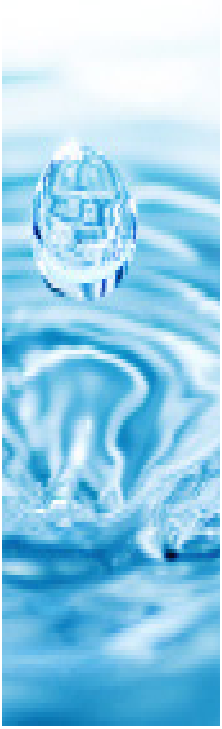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왕의 자녀도 물려 받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권세자의 기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는 간구의 기도는 권세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왕되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포하며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산을 향해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조금의 의심이 없을 때 그대로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할 때 가능합니다.



17 장

/

권세자의 기도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권세자의 기도 알기

1.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 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권세있고 뛰어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2.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듯이 왕의 자녀의 말에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3. 권세자의 기도는 선포기도입니다.

권세자의 기도는 선포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포하며 취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마 11:14). 워킹위드바이블의 '기적의 선포문'을 활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4. 권세자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경우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자의 기도 이해하기

1. 왜 나는 권세자일까요?

2. 내가 권세자일 때 내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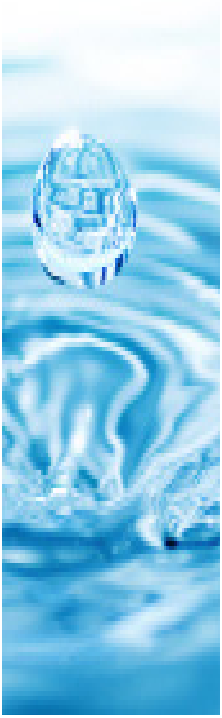
3. 권세자와 믿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8 장

/

나의 상처 치유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치유하기

1. 상처의 주범들

- 버림받음 : 버림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때문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 성폭행 : 성폭행은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 장애 : 영적인 장애와 육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 어렸을 때 어른이나 부모를 통해 학대를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 가난 : 가난한 환경이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 편부모 : 편부모 밑에서 자랄 때 상처를 갖습니다.
- 편애 :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에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 배우자학대 :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 사기 :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2. 마귀의 4단계 공격

1) 공격단계

마귀의 첫번째 전략은 '틈'입니다. 마귀는 우리로부터 '틈'을 얻기 위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마귀는 죄와 함께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의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심은 마귀가 주는 첫번째 공격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첫번째 공격단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틈'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2) 침투단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틈을 발견한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귀신을 집어 넣습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시도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격단계에서는 혼자서 회개하면 되지만 침투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

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적치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선포문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 선포문을 읽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3) 거주단계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 온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귀신이 거주하게 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주단계에 있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자신이 귀신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지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란의 영이 거주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활동할 때에 갖가지 음란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 중독의 영이 거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여간 해서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단계의 귀신을 내 쫓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는 거주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어 앉아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성질만 돋구는 역할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사역자에 의해 비록 그 삶 안의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시금 떠난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떠난 귀신이 더 큰 귀신 떼와 함께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4) 묶임단계

우리 안에 거주한 귀신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귀신들림"이라고 말하거나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묶임단계에 놓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통제뿐만 아니라 죄 인식마저 못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 모양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력한 성령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귀신을 쫓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 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귀신들은 성령님의 권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집

은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을 것이니까요.

3. 상처치유의 과정

1) 상처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적치유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드러나기를 싫어하거나 꺼려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치부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가 있기 위해선 상처자는 자신의 상처를 인식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2) 상처를 고백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오게 하며 더 악한 상태로 만듭니다. 물이 고이면 그 물이 썩듯이 상처가 남아 있으면 그 상처는 쓴 뿌리가 생겨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이러한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선 그 쓴 뿌리를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시 71:13, 시 13:1).

상처의 치유는 토설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설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한다면 진정한 상처치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상처치유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내적치유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적치유자는 상처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3) 상처치유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상처자가 자신에게 피해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이해하는 마음에는 피해준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자들은 늘 자기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 역시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용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바로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와 만남이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고서 못을 박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 이렇게 십자가와의 만남이 있을 때 영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자신을 옭아맸던 나쁜 영과 악한 영들과 이별을 선언합니다. 상처자 안에 더러운 영은 빠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사[逐邪]'라고 합니다.
- 축사 작업이 일어날 때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영혼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러한 상처치유는 단순한 치유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자를 사역자로 변신케 하는 작업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령사역자 중에는 이전에 상처자였거나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상처 치유 방법 알기

1. 상처의 주범이 되는 것들을 말해 보세요.

2. 마귀의 4단계 공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 상처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4. 혹 내게 마귀의 악한 영들이 침투해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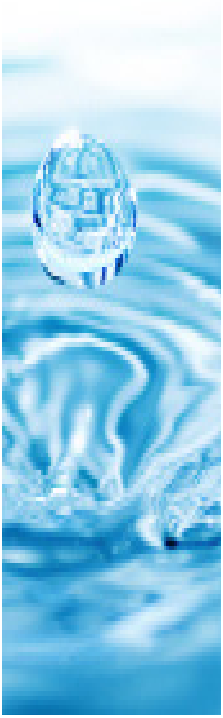
5. 당신은 어떻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9 장

/

믿음 행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믿음 행하기

1.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도 믿음이 천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음'에 대해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바다에 던지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6:30).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했던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자보지 못하였노라"며 칭찬하셨습니다(마 8:10). 바다의 풍랑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고 책망하셨습니다(마 826).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병든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마 9:2).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 당한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 9:22)고 말씀하셨습니다.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으며(마 9;29), 이방인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딸의 병을 치유받기

원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5:28).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눅 17:6)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천국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천국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꾸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지만 의심은 지옥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의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이 99%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1%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의심1%는 믿음 99%를 없애 버리는 ‘누룩’과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9)고 말하면서 누룩의 파괴력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누룩과 같아서 그 크기는 아주 작고 처음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하찮은 누룩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누룩’은 곧 ‘의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6)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7)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조그마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구하면서 ‘그것이 과연 될까?’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이뤄지지 않는 응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그마한 의심’의 파괴력입니다. 당신 안에 1%의 의심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100%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00%의 믿음은 믿음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1mm도 채 안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의 성분이 강력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나중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100% 이뤄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 의심을 가져다 주는 마귀

모든 의심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

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곧 죄입니다. 사도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물론 의심도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의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틈을 공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급한 성질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민이 틈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틈에게 접근하여 틈새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틈은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의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심의 대상이 배우자일 때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의심의 대상이 부모일 때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의 대상이 사장일 때 충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좀 먹습니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믿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역을 하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을 원망하

고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주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성적인 유혹을 받았으며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기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이것이 보혈의 권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짓밟으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승리함은 곧 우리의 승리함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3.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천국의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막 9:23).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1:23).

4.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리켜 '정조'나 '의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오래도록 이 구절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완벽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나를 믿으세요(Trust me!)"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장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셀 수도 없이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도 "나를 믿으세요"라고 했으며, 아내에게도 수없이 사용했고 자녀에게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으세요'의 말에 담긴 '믿음'은 있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건물 신축도를 만들고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기치는 것도 뭔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내 놓지 않습니까? 동해 바다에서 석유

가 나온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기꾼들도 실제로 석유가 품어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기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기꾼이지만 좀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좋은 직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좋은 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 것처럼 꾸몄을 때 배우자를 속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에 눈이 멀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믿음은 뭔가 있는 것을 놓고 믿으라고 강요합니다.뭔가 보여지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의 수없이 많은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믿음'에 대해 바로 이해하기는 힘이 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빼고 나면 그리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처럼 '믿음'은 그야말로 중요한 단어이지만 정작 '믿음'을 지니고 있기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형제가 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 왔습니다.

>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형제에게 '믿음'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보여줬고 설명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그 형제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듣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말로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 드리는 것조차 힘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애인에게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믿음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정조를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애인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애인에게 자신의 정조를 믿어 달라고 했지만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 "아들아, 엄마는 너를 9개월 동안 뱃속에 간직했다가 힘든 고통 속에서 너를 낳았단다. 그리고 너를 애지중지하게 키웠단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낳았고 정성껏 길렀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역시 성경적인 믿음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라는 것들'을 빼고 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ct, substance'입니다. 이 말은 곧 '사실, 혹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사실로 받아 드려질 때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실제적으로 다가서는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단순히 그 사실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창 1:2)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 당시 땅은 혼돈했습니다. ‘혼돈’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무런 형태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허’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허는 ‘empty’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을 때의 그곳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곳에 ‘흑암’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뭔가를 이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의 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6.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빼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습니다.
"믿음은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뭔가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로 사용되는 원문의 단어는 '엘렝코스'인데 이 말 속에는 'proof' 나 'evidence'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Evidence 는 주로 법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뭔가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죄인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유죄라는 사실을 들춰낼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믿음'과 천국의 '믿음'과 다른 점입니다. 천국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

에 거할 자격을 상실당한 셈입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보인다고 말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인데 세상에서처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질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없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7.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대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신 것이지요(창 17:5).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잘 지키거나 신의가 있거나 선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그 음성은 다름아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이사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릴만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미 장가도 갔고 함께 조카도 있었고 하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이사 갈 땅을 훤히 잘 아는 것처럼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면 순종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외쳐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라고 했으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인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십일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저들 생각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들의 믿음은 “0”입니다. “Nothing”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무작정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습니다.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창 12:7)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나이 99세 때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의 육신이 마른 나무처럼 변했고 더군다나 아내의 나이가 89세였기에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 맘 때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19)

바로 앞 구절인 18절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이미 그의 몸이 죽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로써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말입

니다. 이미 죽은 나무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를 보십시오. 재질이 나무이지 않나요? 식탁은 어떻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더 이상 새싹이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미 뿌리가 잘라져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죽은 나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죽은 나무와 같이 더 이상의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면 가능성을 1%라도 생각해 보겠지만 이미 저들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바랄수 없는 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또한 자궁이 죽어 있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크게 믿으셨던 사건은 그로부터 십여 년쯤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소년의 나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치라고 명했습니다.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성경 어느 부분에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제게 이런 명령을 내리

십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순종했는지 성경은 다음날 "이른 아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창22:3)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치라는 명령을 듣자 마자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짐을 챙겨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곳에 다다르자 하인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창 22:9-10)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다행히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마음의 한 점 의심도 없이 아들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엔 '순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 알기

1.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2.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3. 왜 의심이 믿음의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것일까요?

4.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임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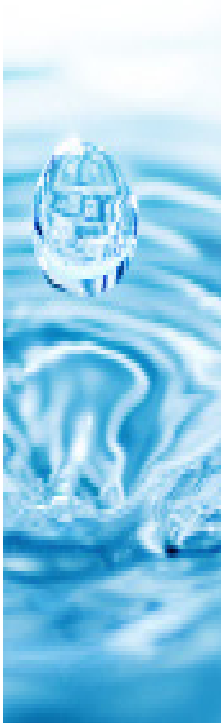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5. 당신은 의심없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0 장

/

성령의 은사 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령의은사 알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전 12:8~12)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모두 9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24가지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일 수도 있으며 99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단 한가지일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은사의 숫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변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13)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일정분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느냐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교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gift)임이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얻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받을 것이고 찾게 되며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눅 11:9~10)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세례'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며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 속에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은사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믿음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미 주어진 은사를 깨달아야 하며 그 은사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은사 중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는 그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했으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때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병이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고 얼마든지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 9:23)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행할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이 문제이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성질입니다. 비단 믿음의 은사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은사의 성질은 다른 모든 은사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은사를 바로 알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사가 수십 가지이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 그 모든 은사들에 대해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놓고 성령의 열매가 27가지이거나 혹은 24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든 설명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도 않는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어 봅시다.

>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단 2:23)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 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단 2:30)

다니엘의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지식(야다)'을 말하지 않고 '지혜(호크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속 마음을 알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사역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1분 전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이 일어

날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이해가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이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과 권능입니다. 권능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중 일부분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2.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어교과서가 영어를 배우게하고 수학교과서가 수학을 배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학습지처럼 읽습니다. 성경을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정도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반드시 읽어야할 필독서 목록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필독서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뜻에서 그리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에 관한 내용을 찾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다, 수색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열심 수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 보이셨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지는 무려 11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눅 24:13)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행하는 동안 두 제자에게 성경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여간 저들의 마음

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성경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풀어주셨을까요? 힌트는 이것입니다.

>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눅 24:14)

'이 모든 된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눅 24:14,현대어 성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간해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게서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주셨고 마침내 저들은 성경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5)

이처럼 성경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제자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

다. 성경을 육적(body)으로 읽거나 마음(mind)으로 읽는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은 영적(sprit)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9~10)

이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때 성경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령사역자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아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정보 습득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된 것도 정보습득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지식의 말씀'으로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해석되던 간에 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던 간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3. 믿음의 은사

믿음은 은사 중의 최고의 은사입니다. 모든 다른 은사는 믿음이 없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 자체가 믿음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것이며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그 사실들을 믿지 않으면 '지식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병 고치는 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병을 치료한다면야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치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금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님의 하신 말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옳았음을 매번 체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언을 할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 통변을 할 때에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

한 것입니다

4. 병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소성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병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단 한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복음이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낼 수 있나"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 단 한차례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교리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외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애굽의 이민 생활을 하시는 동안 죽은 새를 살렸다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새를 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공생에 기간 동안에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사셨고 인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단 한번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동생들을 위해서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담,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심으로써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 하신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만을 사용해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으며 바울 역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5. 능력행함

능력행함의 은사에는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가지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평범한 이빨을 금이빨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평범한 이빨이 점점 금이빨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빨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이빨 뿐 아니라 금가루나 돈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기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사역 도중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4시간 걸릴 길을 1시간도 안 되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야 할 기름병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도 있고 없어져야 할 빵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돈을 챙기는 성령사역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마 10:8)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보다는 겸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귀신을 사랑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6. 예언함

예언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혹은 나라에 대한 앞 일을 말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닥칠 일을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장하였습니다.

>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전 14:1)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린도교회에 가급적이면 예언을 사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전 14:24~25)

성령사역자들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상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환상을 보는 것이 아주 빠르고 쉽게 상대방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선입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들어가면 잘못된 예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견이 묻어 있는 예언보다는 차라리 눈을 가리고 하는 예언이 좋기 때문입니다.

7. 영들 분별함

바울이 이곳에 '영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이 은사를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교인의 영적상태를 일곱단계로 구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

니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습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

바울이 이곳에 언급하고 있는 '영들 분별함'은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냐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내적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내적치유에 사용되는 적절한 은사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감동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며,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게 되면 영체의 오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병이 들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먼사람은 오감 중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귀가 막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모님은 젊었을 때 자동차 사고로 20미터 정도 하늘을 날아본 경험이 있은 후론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감 중 하나를 잃은 것이지요.

오감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러한 오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체가 발달됩니다. 마치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영체도 함께 느낍니다. 영의 발달이 잘 된 사람은 육체가 느끼는 감각보다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 훨씬 강해지기도 합니다.

영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입니다. 청각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각으론 환상을 봅니다. 후각으론 영적 냄새를 맡습니다. 죽은 자에게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가 하면 꽃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 니코틴과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똥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영적 미각이 발달하게 될수록 우리의 입은 세상의 말이 사라지게됩니다. 이전에는 입만 열면 음담패설과 비방, 비판, 저주, 욕설이 가득했지만 영체로 변하게 되면 복음이 나오고 사랑스런 말만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이 품어져 나옵니다.

영적 촉각은 온 몸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실제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옆에 가면 손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며 손에 화기(火氣)를 느낍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아파오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납니다. 카지노가 있는 곳에 가면 온 몸이 부어 오르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영체는 속한 것에 따라 민감합니다. 하지만 영체는 속한 것에 따라 민감해 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체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살인과 저주, 욕설과 비방, 음란과 파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2~3)

8. 각종 방언 말함

바울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방언기도를 어느 정도 사모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방언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방

언을 많이 했다면 방언기도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 여러가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방언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글 때문입니다.

>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게 방언을 가르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내가 언급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천국은 실제의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국의 삶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함입니다.
"목사님, 꼭 방언을 해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통해 천국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하지 않고서도 천국의 것을 경험할 수 있

습니다. 천국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영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영의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영의 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성막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그 안에 영의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막에서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반사람을 포함하여 대제사장조차 얼씬도 못한 속죄소였지만 모세는 매일 원하는 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곳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찾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상하면 곧바로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겐 '이단' 명패가 1주일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방언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방언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보

다 방언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단 한번씩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황홀한 경지에 이르는 영의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장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번 언급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자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딱 한 번 새벽기도를 하신 것이고 딱 한 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셨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대해서는 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9. 방언들 통역함

바울이 '방언들'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방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언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언방언입니다. 적어도 15개의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언방언을 듣고 자기 나라 말임을 증거했습니다.

>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행 2:8)

이것이 대언방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되고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좀처럼 이런 대언방안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는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대신방언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뤄집니다. 요즘 하는 방언의 대부분은 대신방언입니다.
대물방언은 자연계나 생물을 통해 하는 방언입니다. 자연계의 소리를 듣고 짐승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짐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언입니다.
이 외에도 선포방언이나 계시방언 혹은 설교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통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 방언에 한 문장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문장으로 통변 될 수도 있으며 여러 문장이 간단하게 통변 될 수도 있스빈다. 이것이 방언의 세계입니다.
통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이 영으로 하는 것일진대 통역이 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통역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때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통변을 할 때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환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상이 보여지는 것은 영으로 통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알기

1.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재를 안 보고 대답해 보세요.

2. 성령의 은사가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권세자로서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7단계

영적아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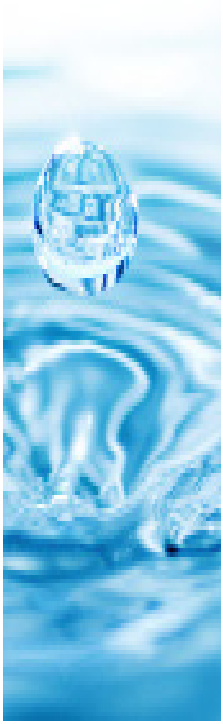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언과도같은 위대한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게하고 교회 잘 다니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듯이 그러한 자녀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스승은 많지만 영적아비는 적습니다(고전 4:15). 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삼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아비입니까? 당신의 영적자녀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영적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까?



21 장

/

제자 삼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제자삼기

1. 위대한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계명(the Great Commandment)'와 '위대한 사명(the Great Commission)'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출 20장).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함축시키셨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요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의 계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계명'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명'을 잘 지키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위대한 사명'은 선교사나 목사들이나 하는 사역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명'을 주셨듯이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계명'도 지켜야 하지만 결코 '위대한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삼기의 대가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제자훈련을 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

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오직 12명의 제자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위 '제자훈련'의 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전파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칠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동은 온전히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2천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삼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삼음은 12명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으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12명에 국한하셨으니 우리도 12명까지만 제자를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제자훈련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삼음에 근거를 두고 행하게 하는데, 평생동안 12명의 제자만 삼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많은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삼으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시 12명의 제자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삼음의 기본질서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12명의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12명을 제자삼는다는 것은

당치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명의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빨리 할 수 있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2명의 제자를 자녀처럼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만 많이 낳는다고해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듯이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에 2명의 제자를 삼게 되면 20년이 될 때에 지구상의 인구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껏 20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기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온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가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온 이슬람교도들이 전심전력으로 전도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머잖아 이슬람교가 기독교 인구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시스템을 따라 제자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많아지고 많아질 때 이 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가득찬 땅이 될 것입니다.

2. 제자삼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로 삼을 때 기본적인 단계는 1)복음전파하고 2)세례를 받게 하며 3)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삼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계속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수많은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삼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 수가 놀라운 속도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3. 복음전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삼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수많은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삼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 수가 놀라운 속도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4. 세가지 영적관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너무나 환란과 역경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나 세상의 방해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악한세력의 공격은 신앙 좋은 성도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영적관계'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 매우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이 세가지 영적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악한세력의 공격을 막고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 영멘 삼기 :

이것은 "영적멘토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멘토가 필요합니다. 영적멘토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영적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멘토가 있으면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멘토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영적멘토의 중보기도를 통해 실족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멘토는 담임목사님이 될 수 있겠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영적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영적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영성을 인도해 줄 분은 영적멘토의 자격이 있습니다.

2) 영자 삼기 :

이것은 "영적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당 12명의 자녀를 삼길 원하십니다. 1년에 2명의 자녀를 삼을 때 6년이면 12명의 자녀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자녀와 평생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영적아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영적아비는 스승과 다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영적아비는 삶을 보여줍니다. 스승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어렵지만 영적아비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3) 영짝 삼기 :

이것은 "영적짝꿍을 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짝꿍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둘씩 짝지어서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영적짝꿍이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음을 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 쉽게 주님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영적짝꿍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이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짝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다 떠는 것 같아도 영적짝꿍과는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다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영적짝꿍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며 마음 속의 고통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기

1.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2. 주님께서 제자삼으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껏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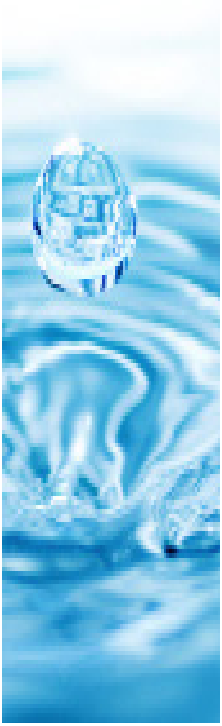
4. 당신은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2 장

/

영적아비의 삶 살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영적아비의 삶 알기

1. 영적아비와 스승의 차이

바울은 이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영적아비는 적다고 말하였습니다(고전 4:15).

>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이는 사람들이 스승은 되고 싶어하지만 영적아비는 되고 싶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부담까지는 지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준비는 해 주지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묶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2. 진정한 영적아비란?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을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음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온갖 헌신을 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이 영적아비가 되는 삶입니다.
영적 아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녀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영적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자녀는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학력 소유자일 수도 있고 배움이 적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아비는 자녀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자녀의 필요사항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긴 세월동안 저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겨우 일주일에 한 두 시간 할애해서 제자를 삼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겨우 음식값을 지불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의 자녀를 본 셈입니다.

3. 어떻게 영적자녀를 삼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영적 자녀를 삼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사 61:3)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자녀를 찾지 마십시오. 슬픔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 자녀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사람이 삶의 환란으로 고통받으며 마음에 슬픔이 있고 영적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영적아비의 삶 살아가기

1. 영적아비와 스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예수께서 진정한 영적아비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지금 당신에게는 몇 명의 영적자녀가 있습니까?

4. 당신은 어떻게 영적자녀를 삼을 계획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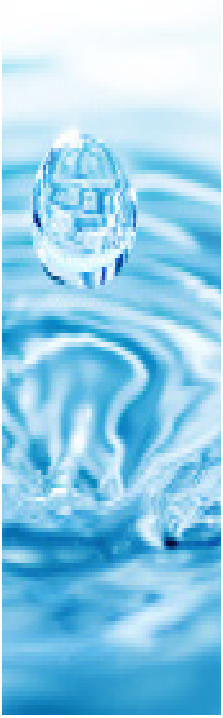
5. 당신은 영적아비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영적아비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당신도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3 장

/

거룩한 신부 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신부 되기

1. 거룩한 신부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가득차 있다면 우리 역시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이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 6장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엔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2. 나실인 서원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어 '나실인 서원'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지냈을 때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후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나 하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의 종살이나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미 성막의 제사장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나실인 서원을 다시금 실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갔으며 이는 일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나실인 서원과는 다르게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지르>입니다. <나지르>라는 단어는 '성별된 자', '분리된 것', '떼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를 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실인 제도는 누가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자원하여 행하는 것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

실인 제도를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
다.

2. 나실인의 규율

나실인 서원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민 6:2-8)

나실인은 남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결단하는 자는 일정 기간동안 금지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기간동안에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않았습니다(3절) 또한 포도나무 씨나 껍질도 먹지 않았습니다(4절). 둘째,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5절).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기간동안에는 절대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셋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6절).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7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나실인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나실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민 6:12)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들에게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민 21:1-3)

하지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부모와 형제의 죽음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의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레 21:10-11)

또한 제사장들은 평소에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레 10:9)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실인서원을 하는 사람보다 제사장에게 보다 관대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평생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행하는 사람의 경우엔 세 가지 규율 중 어느 것 하나를 어겼을 경우엔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금 나실인 서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경우엔 세 가지 규율 중 어느 것을 어겼다 할지라도 나실인 서원자에게 행해졌던 정결의식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평생 나실인이기 때문에 보다 관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3.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 가지 규율만 있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했던 나실인의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율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모든 규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단 지파의 마노아라 하는 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전하며 그 아들로 하여금 "결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삿 13:7)

하나님의 사자는 포도주와 술을 금한 것 외에도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덧붙였습니다. 이는 나실인은 포도주와 술 외에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나 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정욕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갖고 사는 자는 부정한 음식을 금할 의지가 없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술을 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자를 가까이 하길 좋아했기 때문에 포도주와 술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을 어겼을 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행하지 않을 더럽고 추잡한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더러운 행위를 했던 것은 그가 포도주와 술을 즐겼으며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삿 14:10)

삼손은 나실인이 행해서는 안 될 더러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

> 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삿 14:1-2)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삼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송두리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세번째 규율인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깨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에서 만들어진 부정한 음식을 취하였습니다.

>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 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삿 14:8-9)

또한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두번째 규율마저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그만 나실인의 비밀을 말해줬고 그로 인해 머리카락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삿 16:17)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뜻합니다. 모든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실인이었지만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서원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멋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철저한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모나 형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세상의 큰 슬픔 가운데서도 굿굿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매우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모가 죽었기에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마 8:22)

어떤 제자는 제법 큰 부자이지만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따르라 하

셨습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마 19:21)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에게 가셔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모든 환경을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마 9:9)

오늘날에도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

세상과 구별하여 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4. 나실인의 거룩한 삶

나실인의 삶은 거룩한 삶의 표상입니다. 나실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표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나실인입니다. 제사장은 평생 나실인입니다. 삼손이 평생 나실인이었던 것처럼 제사장도 평생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이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평생 나실인입니다.
평생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삼손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실인 서원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행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실인 서원을 행하며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나실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평생 나실인을 축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

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2-27)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띠를 두르게 하시고 그곳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대제사장의 머리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도장처럼 새겨 항상 두르게 하였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출 28:36)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두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단어입니다. <코데쉬>라는 단어는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성소를 뜻하며 때로는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옷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때 '거룩한' 단어에 쓰인 단어가 <코데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모세와 아론은 '몸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대상 23:13)
'몸을 성결케 하여'라는 단어에 <코데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분리됨', '성별됨'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나지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실인의 삶으로 살라'는 뜻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성막의 모든 의식을 집행하게 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실인'의 뜻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거룩해지려는 우리를 막을지라도 이 땅에 나실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거룩한 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찌라도

>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13)

오늘날에도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

세상과 구별하여 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5 진정한 영적아비란?

나실인이 되십시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래 언급된 구절 중에서 밑줄 그어진 단어는 모두 <코데쉬>단어입

니다.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코데쉬> 단어를 통해 나실인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 나실인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존귀한 날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되며 오락을 구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사 58:13)

두번째

나실인은 어느 곳이든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실인이 거하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실인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마다 거룩한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번째

나실인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실인은 세상의 정욕이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나실인은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옷은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지만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옷으로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0:3)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찌며"(출 28:4)

네번째

나실인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속된 것과 구별되십니다. 마땅히 나실인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세

상의 속된 것을 속된 것이라 분별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겔 22:26)

다섯번째

나실인은 자신과 타인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남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더럽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머리띠를 착용하거나 팔에 띠를 착용하거나 특별한 장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출 28:36)

여섯번째

나실인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던지 상관없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

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레 21:6)

일곱번째

나실인은 항상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으셨습니다.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실인은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으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찌니라"(출 31:11)

여덟번째

나실인은 거룩한 음식만을 먹어야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식입니다. 술이나 담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마약이나 약중독 또한 부정한 음식입니다. 습관적으로 취하는 수면제나 진통제 또한 부정한 음식입니

다. 지나친 폭식이나 지나친 금식 또한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모든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찌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출 29:33)

아홉번째

나실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일조와 헌물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일부를 드리라 하십니다.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만일 우리가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8-9)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대상 29:16)

열번째

나실인은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관계는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음란죄는 몸 안에 이뤄지는 죄입니다.

>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삼상 21:4-5)

열한번째

나실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는 곧 영적예배입니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이러한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대상 16:29)

열두번째

나실인은 육신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때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활동을 멈추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금하십시오. 세상사람과의 모임을 끊으십시오. 그들과의 대화도 단절하십시오. 여러가지 사교모임에 참여치 마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저들의 몸을 성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나아갔습니다.

>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대상 23:13)

6. 나실인 서원의식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실인서원'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냥 맘 속으로 다짐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다가 하기 싫으면 집어치는 그런 나실인 서원이 아닙니다.
나실인 서원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실인 서원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의식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기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전통에 의하면 나실인 서원은 최소 30일 이상부터 시작해서 평생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일단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아무리 짧은 기간을 선택해도 최소한 30일은 지켜야 했으며 주로 30일, 60일, 100일 서원이 많이 시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평생 나실인은 이러한 서원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정한 기간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을 어겼을 경우엔 다시 서원의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민 6:9-12)

나실인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서원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성막에 나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사용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정결의식을 드린 후에 다시금 그 날을 나실인서원을 시작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실인서원을 새로 시작하는 날에 일 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나실인 서원 기간이 제대로 마쳐졌을 때 그는 성막에 나아가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나실인 서원기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 서원 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에 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암양 한 마리와 장성한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섞은 과자들과 기름바른 무교전병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 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

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민 6:13-21)

일 년 된 숫양은 번제물로 드려지고 일 년 된 암양은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과자들과 무교전병들은 소제와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의 일부분은 번제로 태워졌으며 요제로 사용된 것들은제사장의 몫이 되었으며 화목제물로 사용되는 숫양은 함께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을 마칠 즈음에 제사장은 나실인 서원자의 머리털을 밀고 모든 나실인 서원을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원 의식이 마친 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원의식은 매우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누구라도 나실인 서원을 마치는 의식을 수행하려는 자를 도와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한 세 사람이 나실인 서원의식을 치를 때에 야고보가 필요한 비용을 대주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행 21:23-24)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실인 서원은 개인의 의식만이 아니

라 유대인 전체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실인 서원을 하려 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서원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실인 서원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함에 따라 나실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짐 못하게 가로 막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 "[암 2:11]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 2:12]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나실인은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통해 온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나실인으로 살아가려는 이 땅의 청년들을 가로 막게 도리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

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타락해진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정직한 재판보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삯을 원하면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돈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거짓으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으며 그 일로 인해 2천년이나 되는 긴 세월동안 나라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포기하며 살았더니 그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훈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비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가정은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라는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실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십시오. 나 스스로 먼저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실인이 되어야 하며 나의 자녀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실인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가 일어날 때 말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기록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릇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발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솥이 될 것입니다.

>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슥 14:20)

거룩한신부의 삶 이해하기

1.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3. 세마포는 어떤 옷이며세마포는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까?

4.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신부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8단계

십자가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며 나를 살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단의 삶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연단과 인내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24 장

/

십자가의 삶
살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삶 살기

1. 원죄의 파괴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롬 5:19). 아담을 통해 원죄가 생겨났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원죄는 파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원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원죄에서 자유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원죄는 파괴되고 막혔던 벽은 무너졌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롬 5:10).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당신의 원죄가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

로 시인하는 것입니다(롬 10:9-10). 이로써 당신을 사로잡았던 사망은 달아나게 됩니다. 지옥의 권세는 당신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제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만이 떨어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비록 원죄에서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원죄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금 그 원죄가 저들을 옭아 맬 것이라고 말합니다(히 6:4-8).

>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4-8)

2.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은 정결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회개가 그것이고 주의 보혈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죄 씻음이 있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

결케 해 줍니다(요일 1:7).

>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어떻게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 보혈의 능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기 위해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 제일 무서운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은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땅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죽은 장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출 12:23).

>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

니라"(출 12:23)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양의 피가 그런 효력을 낸 것입니다.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요일 1:7, 엡 1:7).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계 1:5)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골 1:20).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능력을 줍니다(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예수님은 몸소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은 끝이 났습니다(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기 위해 먼저 당신의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줍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피를 뿌렸으며,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송아지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레 16:15).

>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레 16:15)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롬 5:9).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없이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9)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 4:16). 속죄소를 통해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십자가의 삶 이해하기

1. 원죄의 파괴는 어떻게 해서 가능케 된 것일까요?

2.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3. 당신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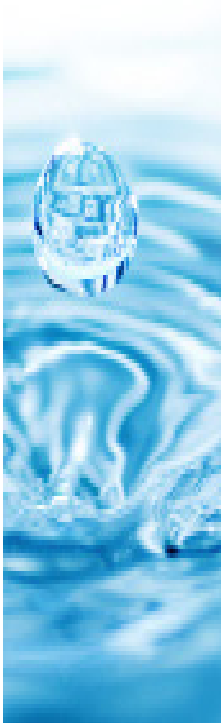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4.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당신 또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5 장

/

회개 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회개 하기

1. 죄의 카테고리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요일 3:8).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안겼던 마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간을 죄 속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body)은 육신의 오감(five senses)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도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이것은 죄에 대한 핵심을 지적한 말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카테고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도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죄에서 벗어나십시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당신을 마귀 품에 안기게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요일 3: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요일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9)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가로 막는 벽입니다(사 59:1-2).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2.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고전 15:31).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우리 또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1) 율법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갈 3:5).

>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갈 3:5)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율법은 자기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하

지만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는 곤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주의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있습니다.

2)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고정된 것을 뜻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마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여자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이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것지 절대적으로 여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으며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고전 11:3).

>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전 11:3)

그리고 그 세운 질서대로 천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종처럼 부리거나 여자가 남자를 주인처럼 섬기라는 말이 아

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을 때 원하셨던 것은 '영광'입니다.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뿐 아니라 가난한 자와 못 배운 자에 대한 고정관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으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향이 어디냐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을 때 나다나엘에겐 나사렛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요 1:45-46).

>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요 1:45-46)

3) 전통

전통 역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죄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 우리의 전통마저 죽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통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을 존중하며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전통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전통을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도 합니다(사 29:13).

>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전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 막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은 무섭고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4) 교만

성경은 교만을 가리켜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만은 멸망시키는 지름길 입니다(잠 18:12). 성경에 얼마나 많이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 겸손한 자는 복을 받지만 교만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약 4:6).

>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약 4:6)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 버립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쳐대지만 정작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며 자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 8:14). 교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 자아

자아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여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아가 강한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잠 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사실상 미련한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지혜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고 듣기를 싫어하고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잠 13:1).

>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잠 13:1)

6) 의지

영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안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부흥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슥 4:6).

>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7) 욕심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의 욕심의 카테고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요일 2:16).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인간의 욕심은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

심은 모두 육신을 위한 것이고 안목을 위한 것이며 이생에 국한된 것입니다.

3. 회개의 순서

1) 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의 큰 죄를 범했더라도 조금도 죄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을 큰 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온전한 회개를 낳게 합니다.

2)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겨납니다.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회개를 잘 하기 위해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3)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4)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보상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더 많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죄는 사람에게 보상하십시오. 물건을 훔쳤다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음을 했다면 간음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간다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파십시오. 죄와 함께 사는 집보다 죄 없이 사는 길바닥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남을 속였다면 속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근무시간을 어겼으면 어긴 시간만큼 일을 더 하십시오.

모세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보상'은 원래의 것에 1/5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민 5:7).

>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

보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가해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 다섯을 취했다면 다섯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

로 갚을찌니라"(출 21:23-25)고 명령한 것입니다.

5)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받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용서를 바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롬 4:8).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8)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대하 7:14).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6) 죄를 버림이 필요합니다.

지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죄의 반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똑 같은 죄를 다시금 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현재를 지켜

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오직 현재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과거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성자가 될 수 있음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죄는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도박, 마약, 음행 등 습관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혹 당신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단계를 잘 이행했다면 습관적인 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습관적인 죄를 없애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버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죄에 대한 고통과 죄의 고백은 물론이고 죄에 대한 보상과 용서,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의 삶 이해하기

1. 죄의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봅시다.

2.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회개의 순서를 설명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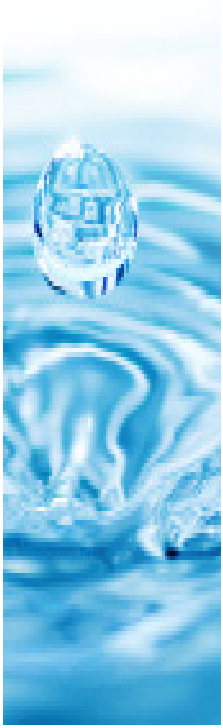
4. 당신은 날마다 지은 죄(자범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순서에 따라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6 장

/

주님의 보혈 체험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보혈 체험하기

1.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은 정결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회개가 그것이고 주님의 보혈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죄 씻음이 있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해 줍니다.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 주님의 보혈 바라보기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은 보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

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주변에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면 마음 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 장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띈 놋뱀 장대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음을 면케 했습니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민 21:8-9)

모세가 치켜 든 놋뱀 장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역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 주님의 보혈 이해하기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선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당신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이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4.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믿겨지지 않을 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는 것은 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 당신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당신은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당신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당신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일생에 한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결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니까? 오직 당신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시고 안목의 정욕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도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거듭 태어나십시오.

5. 마귀의 방해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완전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정결해지고 싶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마귀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회개한 자는 저들의 표적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였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만 할 뿐 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마귀의 표적거리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는 사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우는 사자가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살아남았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저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단 6장).
우는 사자의 입은 크고도 무섭습니다. 한번 물리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 큰 입에는 사람의 머리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제 막 회개하고서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혈의 힘은 사자의 힘을 꺾습니다. 삼손이 사자 입을 꺾었듯이 보혈의 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보혈의 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더 이상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자녀들 위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 구할 내용을 선포할 때마다 이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토록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 보혈의 능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기 위해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 제일 무서운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든 애굽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생긴 이래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땅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죽은 장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3)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양의 피가 그런 효력을 낸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36)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라고 말하고 있습

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계 1:5)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능력을 줍니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나는 날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피를 묻힙니다. 나는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언약궤 사방에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함을 얻었듯이 나 또한 기도실 사방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적이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의식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느낌을 당신도 느껴야만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실 사방에 피를 뿌린 후 내 몸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때때로 아예 예수님의 피를 온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면 기도의 힘이 커짐을 느낍니다. 마귀의 방해도 훨씬 약해짐을 느낍니다.

치유집회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영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하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젯거리를 다 드러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문제들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문제가 사라지도록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얼마간의 시간동안 마음 속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향해 "주님,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또 다시 성도들에게 다시금 문제들이 몰려 오는 것을 느끼라고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라는 선포를 마음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성도들에게 다시 문제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이제는 몰려 있는 문제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 속으로 문제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도들에게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성도 모두가 한결같은 답을 했는데 주님의 보혈을 뿌렸을 때 문제가 가장 많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했던 것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내게 똑 같은 실험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가

지를 실험했을 때 나 역시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보다 더 강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제대로 하지 못한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악한 영들은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많이 뿌린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가끔씩 남의 집에 방문할 때면 그 집의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영적으로 매우 밝고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매우 어둡고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뿌릴 때 더 많이 뿌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TV나 컴퓨터에 많이 뿌려야 합니다. TV나 컴퓨터는 음란한 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가득합니다. 부엌이나 침실도 많이 뿌려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자리하기 쉽습니다. 응접실에는 여러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동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각종 악한 영이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사용했던 목걸이나 팔지 같은 것은 좋

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제작된 좋지 않는 글씨가 새겨진 반지도 좋지 않습니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모든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새벽기도하러 교회에 가면 어김없이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도 그 집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 집에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님의 보혈이 그 가정을 덮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5. 언약궤의 피

혹 알고 계십니까? 언약궤에 피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법궤입니다. 그 이후로 성전에는 항상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했습니다. 비운의 시기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시절이 있었지만 적군의 손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도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장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삶의 핵심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궤에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성전에서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매일 쉬지 않고 짐승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도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피가 뿌려지는 이유는 속죄가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의 뿌림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는 속죄소에 들어가야 할 대제사장을 위해 피를 뿌렸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레 16:14-15)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뿌렸던 피는 모두 속죄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동편에 뿌렸습니다. 또한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속죄소 전 주위가 모두 피로 물들어져 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반드시 피로 덮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성소에 뿌린 수송아지와 염소를 대신하여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주기 위

함이었습니다.

>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히 9:12)

예수님은 몸소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기 위해 먼저 당신의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줍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6. 속죄소의 은혜

혹 알고 계십니까? 언약궤에 피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약궤는 성령님께서 내게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몸은 특별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손이 붓거나 통증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온 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머리에는 마치 뜨거운 열이 증발해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관이 씌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온 몸이 굳어 버리기도 하고 심한 떨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온 몸이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의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이것은 마치 입신 때의 느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입신의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입신은 몸의 느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영의 활동만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입신의 경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과도 같습니다.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민 7:89)

속죄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그룹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속죄소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으며 속죄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이처럼 속죄소를 지키고 보호하며
지극히 높은 존경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룹들이 생명 나무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속죄소를 위한 피를 뿌렸습니다.

> "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레 16:15)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피를 뿌렸으며,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송아지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9)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없이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20)

6. 보혈을 지난다는 것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소를 거쳐야 합니다. 속죄소를 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묻혀야 함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보혈을 지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어떠한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혈 한 방울만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질 때 마귀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은 내게 의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

지 않습니까? 저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요?"라고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들이 비록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저들에게 보혈이 묻어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저들의 영혼에 보혈 한 방울만 떨어지게 되면 마귀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곧바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의 보혈을 당신의 몸에 묻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주님의 보혈이 기 때문입니다.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오직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게 될 때 보혈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없애 주지만, 당신에게 죄가 없을 때 보혈이 묻게 되는 것입니

다.

2)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마음에 묻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마음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친구의 사랑보다 크며 부모의 사랑보다 큽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키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 어떻 묻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일 4:20)

3)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

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당신의 심령에 묻히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그룹은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지 않는 사람을 언약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심령만 언약궤로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죄소를 통해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황홀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영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당신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은 모든 마귀의 세력이 당신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빛이 당신의 영혼을 내리 찔 것입니다. 그 빛은 당신 안의 어두운 세력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혼육에 건강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당신 안의 모든 더러운 죄와 생각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속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얻게 됩니다.

주님의보혈 체험하기

1.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의 보혈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요?

2. 당신은 주님을 실제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4. 당신은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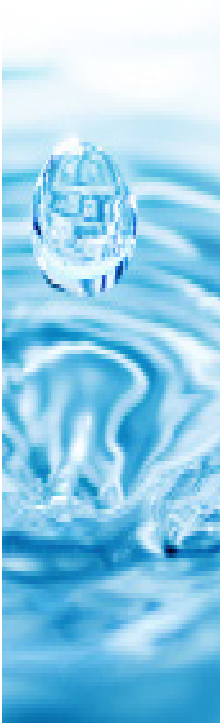
9단계

성령충만한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외롭게 놔 두고서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신대로 하나님께서 성령하나님을 곧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부음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성령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7 장

/

성령의 불 체험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불 체험하기

1.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충만'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성령충만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남용되어서 "성령충만 합시다"라고 말하면 그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충만이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윗 구절에서 언급된 성령은 성령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불세례를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령세례를 받을 때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부으심에는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 대는 단순한 성령세례가 아니라 성령충만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불세례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말하며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더 중요하듯이 불세례는 성령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다르듯이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세례도 중요하지만 불세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세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세례에는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세례는 성령의 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세례는 성령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를 이해한다면 성령세례 또한 이해할 것입니다. 물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이고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육체적인 것이라면 성령세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세례는 물세례도 아니고 성령세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없이 갑자기 불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야 하듯이 불

세례를 받기 위해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성령세례가 번제단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불세례는 지성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세례가 참 경배자의 준비조건이라면 불세례, 즉 성령의 불은 참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물세례가 물로 행해지는 것이고 성령세례가 성령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불은 기름부음으로 행해집니다.

성령세례에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세례를 통해 어떤 이는 방언을 하며 또 어떤 이는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불세례를 받은 사람에겐 그 이상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에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것을 똑 같은 길이로 펴주는 치유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치유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세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의 근원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믿으십시오. 성령에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성령세례와 함께 성령충만함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성령의 불과 전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자주 불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NIV(New International Vision) 영어성경에선 성령을 가리켜 'the fire of spri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했으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행 2:2-4).

>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세례요한은 성령의 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례를 물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마 3:11).

>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왜 세례요한은 자신의 물세례에 비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세례요한은 물세례만 행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 죄사함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세례를 주었습니다.

>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행 19:2-3)

사도 바울로부터 성령세례를 받게 된 에베소 제자들은 그 즉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세례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세례의 본질적인 요소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하지만 많은 크리스챤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

치 부부가 함께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이 믿는자의 몸 안에 함께 거하시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직접 행사하고 싶습니다. 바로 불세례가 이러한 일을 돕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불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세례를 받게 된다면 당신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으로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너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에 가득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를 주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불세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챤이 불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세례에 대한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불세례의 능력을 어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세례는 성령세례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세례의 강력한 능력과 변화를 체험한 후에 불세례를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르는 것과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히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성경주석 해석보

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또한 70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의 행적은 어느정도 알 수 있지만 70제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극히 일부분에서 70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구절은 70제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눅 10:1)

예수님께서 70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신 것은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제자와는 별도로 70제자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장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눅 9:1)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제자는 귀신을 제어했으며 병을 고쳤습니다. 물론 70제자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70제자들은 사역후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17)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 아니라 70제자에게 동일한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행 10:38).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던 것일까요?
이 부분이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전이>를 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전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전까지 단 한 차례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실 때에도 남들처럼 배를 움켜 쥐며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남들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인간의 삶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

상의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의 능력을 키우셨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했고 병을 치유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12명의 제자든지 70명의 제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70제자가 누가복음 10장에 단 한 차례 언급된 이후에 종적을 감추고 만 것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당신과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70제자의 가장 첫번째 사명이자 큰 사명은 <추수할 일군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추수할 일군> 나와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자를 제자로 부르셨고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이제 당신은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2제자만 능력을 받았고 70제자만 권세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말씀으로 명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의식이라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수>의식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수>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허락없이 안수하다간 교회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만큼 안수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안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물론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은 안수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단순한 목회자에 대한 선임목회자의 위로 정도로 해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적힌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 제자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경저자들은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동기부여>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혼적으로 해석하려는 저들의 노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식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히 6:1-2)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와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안수>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66권 성경 중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띄어난 책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는 천국과 연관되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다른 중요한 것들과 함께 <안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수>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짐승들에게 반드시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이것

은 <죄의 전이>역할을 했습니다. 마땅히 산 사람의 죄를 물으면 그 사람이 직접 번제단에 올라가 불에 태워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을 대신 태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반드시 안수가 행해졌으며 그것은 <죄의 전이>였습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안수를행했습니다. 단순한 안수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저들 머리 위에 부은 다음 손은 얹어 안수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부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를 세울 때 안수의식을 행합니다. 나도 목사가 되었을 때 1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목사가 된 기념 선물로 액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수가 매우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안수는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안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는 받아드리는 사람의 자유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던지 안 믿던지도 자유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안수의식에 대한 의견은 더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수의식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안수의식의 중요성을 믿고 행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가도 안 가고서 아들을 달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을 달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수 의식은 직접 행하고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야만 좋은 것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을 때이스라엘에서 흔히 했던 <안수>를 행하셨을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능력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부음이 전이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행합니다. 안수를 할 때면 내 머리에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에 화관이 씌어지는 느낌이거나 아지랑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간혹 머리가 쬐이거나 이마 한 가운데에 뭔가가 눌러지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느껴지는 증상말고도 내 몸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12가지 정도쯤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증상을 성령님께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증상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여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대한 무례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일일이 예전에 배웠던 책을 꺼내 다시 읽는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증상에 대한 치유 방법을 깨달아 가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능력전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과 손과 몸으로 나갑니다. '말'은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됩니다(히 4:12). '손'은 안수를 의미합니다.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안수'가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히 6:1-2).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안수에 대해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부활'과 '심판'과 함께 '안수'를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 '신앙', '세례', '부활', '심판'은 초보 중의 초보입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러한 내용부터 가르칩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 도의 초보 중에 유독히 '안수'만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몸'을 통해 전이됩니다. 몸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할 때 병든 자는 건강한 자의 몸을 통해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상처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을 통해 질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약 5:14). 우리가 병든 자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서 행하는 자가 옳은 자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환부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병든 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말'과 '손'과 '몸'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은 참 많습니다. '말'적은 교회는 교회가 아닐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말'빼면 아무 것도 남는게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도 좋지만 '손'과 '몸'도 중요하다 말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구제하며 치유하는

데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 끌어 안고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4. 성령의 불의 증상

만약에 당신이 육의 기도를 지나 혼의 기도를 거치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체험이며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예배 후 묵상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내 다리에 머리를 의지한 채로 누워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주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통해서 어떤 교회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눈은 동영상을 향했고 오른 손은 아내의 이마에 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생각엔 대략 20여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마를 대고 있던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픔은 팔목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통증은 팔 전체의 마비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내에게 강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며칠동안 아내의 온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아내의 손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아픈 곳에 갖다 대거나 상처있는 가슴에 손을 대면 그 효과가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불을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영성훈련동안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약 4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손과 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 봤더니 성령의 강한 기름부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음날 아내에게 똑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내 손과 발에는 뜨거움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의 또 다른 모습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입니다. 뜨거움과 감전의 느낌은 늘 손과 발이 부어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불을 받았을 당시에는 주먹을 쥘 수도 없을 정도로 손이 부었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뚜껑을 열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손가락 마디마디에 큰 통증을 느끼면서 아프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증상이 사라졌고 손의 힘은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사람들은 뜨거움을 금방 느꼈고 손을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안수할 때 저들도 손과 몸에 특별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께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왼쪽 손목과손 일부분이 부어올랐습니다. 핏줄이 다 보일정도로 부어 오르며 피부가 마치 터질 듯 했습니다. '이러다가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께서는 "괜찮으니 계속해서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손과 손목이 원래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제게 "왜 왼쪽 손에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령님께 물었더니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양손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성훈련을 하는 동안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는 두 손을 잡지 말고 따로 무릎에 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면 어김없이 성령님은 두 손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날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킬 때 성령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똑 같은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받는 제자 중 어느 한 집사님께서 어느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안수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불과 2개월도 채 안 된 제자였습니다.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에 관한 책을 읽고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고 자신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저희 영성훈련에 참석한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작한지 4주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니 환상을 보고 손에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신출내기 집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성령에 취해 비틀거렸을 때 이 집사님이 두 분에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능력이 두 분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집사님으로부터 전해오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양쪽 손의 느낌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손은 엄청난 통증을 느낀 대신에 다른 분에게는 짜릿짜릿한 전류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 날 많은 사람들이 양쪽 손의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종의 감전된 느낌이나 떨리는 느낌이나 뜨거운 느낌 같은 것은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

습니다.
성령의 불의 증상은 떨림과 감전된 느낌이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증상의 종류를 나열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5. 성령님의 실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많은 오해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만 막상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깜작 놀라거나 어쩌면 뒤로 자빠져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나보면 알겠지만 성령님은 결코 무서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이 너무나 반갑고 감격적입니다.
또 다른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성령님이 비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령님을 비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령님을 비인격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처

럼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전자음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분께서는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권위가 있거나 명령적이거나 내게 하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늘 자연스럽고 부드러우시며 넓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더없이 좋은 선생님이시자 안내자이십니다.

6. 성령의 불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말과 손과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왜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불일지라도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는 강력함이 있을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불이 온 세상을 불로 태우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

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듯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영광은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도 없으며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요 능력의 기초입니다.

7. 성령의 불의 능력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할 때 산이 바다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마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것이며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아무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성도나 특별한 집사, 권사, 장로 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어찌 나

같은 자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을 초창기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자신의 발목에 안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발목에 안수해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안되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는 있었어도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발목은 큰 아들 돌 무렵 때 계단을 헛디뎌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있었지만 그 이후론 오래 서 있지도 못했고 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몸무게가 많다 보니 발목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커져 갔습니다.
그날도 발목이 너무 아파서 내게 안수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번도 병 치료를 위해 안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대함을 갖고서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선포하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뜬금없는 성령님의 말씀에 “예?” 라고 되 물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선포해야 할 문장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목은 정상대로 회복될

지어다!"
성령님의 말씀 따라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성령님은 다시금 내게 "다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을 더해서 모두 세 번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세 번의 선포기도가 끝나자 내게 손을 때라고 하셨고 나는 아내의 발목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어나 걸어봤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너니만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접실이었기에 제자리에서 뜀 뛰기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뜀뛰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약간의 움직임도 발목에 통증을 가했는데, 아내는 아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옆에 있는 큰 아들과 함께 음악을 틀어 놓고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발목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아내의 발목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일을 해야만 했을 때 가게 카운트를 보느라 오랜 시간 서있을 때에는 발목이 약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약간에 불과했으며 그럴 때마다 나는 발목을 붙잡고 불을 넣어주었고 그 즉시 발목의 통증은 사 라졌습니다. 얼마나 발목이 멀쩡했으면 이사할 때 나와 아내와 나이 드신 장인어른 세 사람이 이삿짐을 다 나르고 정리했을까요……

8.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 계시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습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자녀는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역시 당신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자녀도 함께 누릴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속성과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 속성을 완전히 몸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 후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없을 땐 성령의 불도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세상의 것을 탐하면 그 사람의 불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불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한다면 그

사람의 불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남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 불을 가지고 있음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불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다른 속성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참다운 교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보다 교회 내에 더 사기꾼이 많고 도적질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 다. 교회라기 보다 오히려 사기꾼 양성소나 도적질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닌 사교 클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러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 내의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향취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 곧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 줍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사람들로 하여금 맡을 수 있

게 해 줍니다.

성령의 불 이해하기

1. 성령의 불과 성령세례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2.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3. 하나님의 능력전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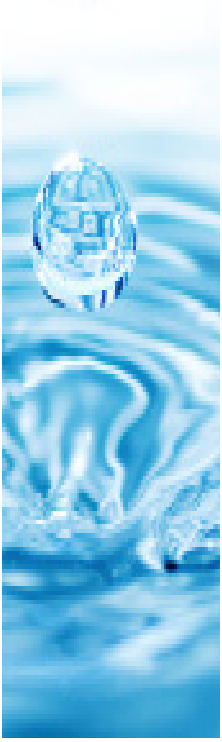
4. 당신은 성령의 불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8 장

/

기름부음의 삶 유지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기름부음의 삶 유지하기

1. 기름부음의 삶

주님의 사랑을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인간 그대로의 성품으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부음'입니다.
기름부음은 거듭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지만 기름부음은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2. 물세례와 성령세례

거듭남은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됩니다. 물세례는 육체적인 거듭남이지만 성령세례는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

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예수께서 언급한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세례에 대해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장면이 소개되었습니까?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후 곧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에게 '성령세례'가 먼저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행 10:44-47)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방언을 말했으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한 것을 지켜 본 베드로는 저들에게 물세례를 받도록 했습

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와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때로는 물세례가 먼저 임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세례가 먼저 임하기도 합니다. 물세례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도 틀린 것이며 성령세례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순서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세례는 죄 씻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물 속에 잠겨 버립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물세례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이던지 아니면 약간의 물을 뿌리는 세례이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우리의 죄 씻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는 우리의 영적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세례 역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충만을 가져다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깨끗함과 정결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 거룩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세례는 억지로 구할 수 없습니다. 물세례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이뤄지지만 성령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세례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성령세례

를 억지로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마치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성령세례와 기름부음

기름부음에 비해 성령세례는 그 권세나 능력면에서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대화는 오늘날의 많은 제자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선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교회들이 ‘성령운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령운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작은 규모입니다. ‘이단교회’라고 낙인이 찍힌 교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음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있으므로 성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성경이

있으므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며 또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행 19:3)고 묻자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곧 '물세례'를 말합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곧 '성령세례'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나서 저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저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6)

바울의 안수로 인해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였고 그 결과로 저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세례의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세례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교회 전체 성도가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언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놀라움이 '성령세례'로 말미암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기름부음에 비해 낮은 단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세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안수는 왜 중요한가?

아마 당신도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한 것은 바울의 안수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행 8:14-17)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수는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안수함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때에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 "[민 8:10]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민 8:10)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 때에도 안수를 했으며(민 27:18), 그 뿐 아니라 속죄물로 바쳐졌던 짐승들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출 29:10).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안수를 했습니다(행 13:3). 초대교회는 일곱명의 집사를 선별하고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행 6:5-6).

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야곱의 자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저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충만한 성도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를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라고 명했던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

늘"(행 9:10-12)

아나니아는 평범한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저에게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직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도가 마음껏 안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언을 전하게 하십시오. 방언하도록 내 버려 두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내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수는 직분에 관계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안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도 안수할 수 있고 권사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서도 안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해선 안됩니다. 안수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수는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피안수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바라거나 어떤 유익을 바라면서 행해서는 안됩니다. 성경

은 이러한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행 8:14-23)

시몬은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였습니다. 그에게도 놀라운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로부터 큰 자라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귀신을 쫓아 내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쳐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기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좇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선 더 놀랐습니다. 마술사인 시몬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단순한 마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기를 원했으

므로 사도들에게 돈을 줘 그 권능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정욕대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전 5:22)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늘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안수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직분을 줄 때만 안수를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세례의식을 행할 때 안수를 합니다. 하지만 안수함으로 병자를 고치고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안수함으로 축복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수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찌니라"(히 6:1-2)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와 죄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 중 '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헌금이 빠지면 되겠습

니까? 하지만 '헌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임'에 대한 단어도 빠져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헌금'이나 '모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모두 다 복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헌금이나 모임이 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헌금이나 모임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더 많은 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안수는 '전이'의식입니다. 전이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체험자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가장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영광을 전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더 이상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 외에는 당신과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는 이미 당신의 목회자 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를 당신도 버리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

오. 하나님은 즉시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곤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도록 내 버려 두셨습니다.

>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5. 기름부음의 능력

기름부음은 성령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충만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부음이나 성령충만은 갖은 뜻입니다. 기름부음은 단순히 거듭남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체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여러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기름부음은 그것의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영광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행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전 15:40-41)고 말했습니다.

>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40-41)

하나님의 영광에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해가 달과 다르고 달이 별과 다르듯이 영광에는 서로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주 많은 단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전 15:39)고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있고 불신자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겉모양을 하는 불신자의 육체도 있으며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있는 송장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 같은 육체이지만 어떤 육체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육체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는 똑 같은 것이 없 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이 조그마한 물고기도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똑 같아 보이는 잎사귀도 사실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 역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단순히 근육질 체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해도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메달밖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달음질로 비유했습니다.

>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

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모두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 11:6)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이길 바랍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은 재물도 건강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 상은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기름부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부음은 '성령충만'입니다.

6. 기름부음의 삶

기름부음은 성령세례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세례에도 방언이나 예언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름부음에는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크게 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

만 성령세례에 가려서 성령충만을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름부음은 성령세례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름부음을 느꼈어도 내일 또 다시 기름부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기름부음을 오후에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름부음은 많을수록 좋으며 체험할수록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능력 때문에 기름부음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기름부음이 능력이기는 하지만 능력 때문에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겐 좀처럼 기름부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기름부음을 받기에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기 위해선 세상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은 단순히 몸의 내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말합니다. 우리 몸엔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위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한 점 어두움이 없도록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기름부음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부음의 전부입니다.
육체의 정결을 유지하십시오. 일체의 죄가 없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와 감정과 의지를 세상 것에 맞추

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감정이나 당신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거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 놓으십시오. 당신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불가능합니다.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영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 영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마귀는 사라질 것입니다. 마귀를 선택하면 성령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는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성령과 마귀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두움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체험은 불가능합니다. 100% 성령으로 가득차야만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름부음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속을 뜻하듯이 기름부음은 권능을 뜻합니다. 이처럼 기름부음에는 놀랍고도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네 가지 기름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름부음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행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기름부음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기름부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뜻합니다. 또한 기름부음은 선지자에게 행해졌습니다(왕상 19: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샤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16)

기름부음은 제사장에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음은 문둥병자에게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치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약 5:14)

이처럼 기름부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부음이 있는 곳에는 그 누구도 그 권능을 깨뜨리지 못하며 거부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기름부음에는 그 만큼 큰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름부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영성이 커집니다.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권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부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름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집사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온 성도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름부음의 삶 유지하기

1.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2. 성령세례와 기름부음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3. 당신은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전이됨을 믿습니까?

4. 당신은 기름부음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29 장

/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방법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방법

1.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성도는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금그릇이던지 나무그릇이던지 상관없이 오직 깨끗해야만 합니다(딤후 2:20-21).

>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딤후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그릇이 더럽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고귀한 성령님의 기름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기름은 더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더러운 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릇에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그릇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릇에 틈이 있으면 기름은 새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릇에 틈이 있다면 금방 기름은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틈'은 곧 마귀에게 허용하는 '틈'을 말합니다(엡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7)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조그마한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올 것이고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은 곧 새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틈은 생각보다 조그만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듯이 마귀에게 허용되는 틈도 이렇게 하찮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예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남의 좋은 점만 얘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고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혀는 그 동안 쌓아 놓은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3. 그릇에 고인 기름은 썩습니다

한번 받은 기름은 늘 사용하여서 새로운 기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기름이 고여있으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능력의 기름부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름은 썩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은 늘 채워져 있어서 새로운 기름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사해의 물이 짜게 된 이유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흘러 들어온 물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지 않으면 물이 짜게 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나와 그것이 바다를 소성시키겠고 그곳에 많은 고기가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겔 47:8-12).

>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편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느니라 마다 사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그 종류를 따라 대해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흙과 개뻘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막히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8-12)

이는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생수가 있을지라도 그 생수가 고여있으면 썩고 말지만 생수가 흐르면 바다를 소성시킵니다.
어떻게 기름을 방출할 수 있습니까?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이(impartation)의 방식이어도 좋고 병을 치료하는 사역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방출입니다. 강이 바다를 소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들어온 기름을 바다로 흘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바다를 살렸던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유지하기

1. 성령의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2.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그릇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3. 당신의 그릇에 있는 틈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이 받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어떻게 방출하고 있습니까?

5. 당신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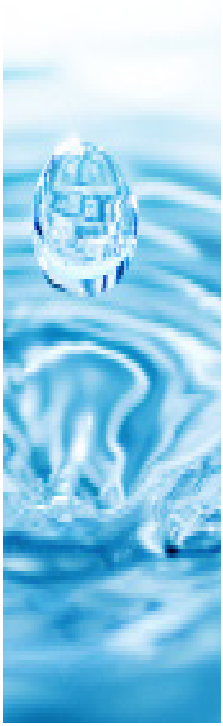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10단계

마귀를 대적하는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인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마귀에게 그 어떠한 틈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며 그로 인해 하늘에서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마귀는 자신의 인생이 지옥에 떨어질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이 땅에 떨어졌는데 저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으로써 마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한 영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30 장

/

마귀의 정체알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마귀의 정체 알기

1.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늘날의 마귀가 된 것입니다.

>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

'큰 용'은 곧 '옛 뱀'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은 곧 '마귀'이며 '사단'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용(drag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짐승인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악마를 가리킬 때 주로 '용'이나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어 떨어질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의 세력들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겨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계 12:7-8).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2.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교만'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같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14)

마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듯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으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커져가는 교만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사야는 마귀를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사 14:1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별(Morning Star)을 뜻합니다.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계명성이라고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계 22:16)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새벽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벽별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를 향하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마귀가 참으로 아름답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천사였지만 그의 인생은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사 14:11)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마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 스스로 하나님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고 마귀의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 마귀의 최후

마귀의 최후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 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2-3)

주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붙잡아 천년동안 무저갱 속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잠궈 인봉하고 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동안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이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분노를 참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마귀는 조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잠시 무저갱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는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계 20:7-8)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파하시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계 20:10)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유황 못에는 마귀 뿐만 아니라 마귀를 섬겨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계 20:10)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4. 마귀의 삼위일체 관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마귀 또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마귀는 짐승과 거짓선지자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계 13:4)

또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계 19:20)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계 16:13)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귀도 똑 같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역을 하시지만, 삼위일체 마귀는 인간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것처럼, 짐승도 마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계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사역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

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더러운 곳이지만 오히려 사탄은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러운 세상으로 달려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을 대신하게 합니다.

5. 온 천하를 꾀는 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욕'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혀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욕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정욕'을 많이 추구하며 성취한 사람들을 가장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욕'을 추구하며 살 때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정욕'을 통한 유혹은 매우 자극적이며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당했을 때 그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으며 탐스러웠던 것입니다(창 3:6).
이처럼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속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그 '욕심'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죄를 짓게 하였을 때 아담은 불사불멸의 몸에서 필사필멸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죽임을 당하도록 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정욕'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추악한 행위를 참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저들을 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저갱에서 천년동안 지내야 할 것입니다(계 20:1-4).

6. 짐승의 표

이처럼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 뛰어난 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마귀가 상대할 분이 아니심을 마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항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세상에서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의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1-12)

때가 되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계 13:16)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계 13:17)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살 수도 없으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를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출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나 준비 자세를 갖추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시대에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주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짐승은 이미 이 세상에 있으며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3)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마 24:9)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마 24:10)할 것입니다. 이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할 우리를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마귀의 정체 파악하기

1.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 났습니까?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2. 마귀의 최후는 어떠할까요?

3. 삼위일체하나님의 관계를 흉내 낸 마귀는 어떠한 삼위일체를 만들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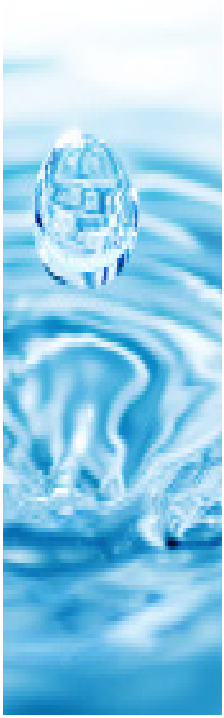
4. 짐승의 표는 어떠한 것입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1 장

/

지금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지금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1. 마귀의 공격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중 불과 300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전쟁이 끊임없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끊임없는 영적전쟁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인간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절대적인 적은 하나님이시기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계 12:7).

>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계 12:7)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패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김을 받을 때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예수님도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누구보다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 또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마귀의 네 단계 조직

바울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

바울이 언급한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팔레>는 '흔들리다'는 <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오직 에베소서에만 사용되었을만큼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금욕적인 의미로서의 나 자신과의 싸움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을 언급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영적전쟁을 설명하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죽기아니면 살기로 상대방을 밀쳐내야만 하는 씨름을 상상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전쟁이 얼마나 살벌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전쟁을 언급하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개념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충분히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전쟁보다 마귀의 전쟁이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의 네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적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일단 마귀의 조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정사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의 첫번째는 '정사'입니다. '정사'의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근원'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성경에도 두 군데 모두 'In the beginning' 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태초에(in the beginning)'라는 단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시작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을 언급하면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귀의 조직을 설명하면서 첫번째 단계를 '정사<아르케>'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근원의 시작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모든 근원인 '마귀'를 견주어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정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사'는 '마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부여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꾑니다. 하와가 '정욕'에 이끌리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를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 권세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로써 '권력자'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나라의 권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나 각 대륙연합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권세'라는 단어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도 포함됩니다.

마귀는 '권세'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는 작은 지역이나 영역이 아닌 보다 큰 지역을 의미하며 그 지역과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세력아래 놓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3) 어둠의 세상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은 각 나라와 큰 지역 권세를 사로잡는 마귀 조직에 해당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음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도박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범죄가 많은 지역이나 자살이 많이 자행되는 도시는 모두 특정한 마귀의 세번째 조직인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주관자가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도박의 영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도박이라는 무기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주관자가 있기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 빨리 강하게 도박의 영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절이 많은 지역에는 절과 연관되어 우상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절이 있는 곳에는 우상과 잡신의 역사가 강하기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명산에는 각종 점쟁이와 무당이 깔려있습니다. 산이 좋다고 찾아가는 등산객들에게 점쟁이와 무당의 잡신이 스며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런 점쟁이들이 있는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4) 악의 영들

바울이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을 때 복수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악의 영들'은 도처에 깔여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은 개인에게 공격하고 침투하며 거주하여 묶임을 놓습니다. '미움의 영'이 깃든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찹니다. '절망의 영'으로 깃든 사람은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저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저들은 복잡하고도 여러가지 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조직은 치밀하고 단계적입니다. 주로 가장 먼저 활동하는 영은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의 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다가갑니다. 저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멀쩡한 사람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의심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려 이혼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깨뜨려 이혼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깨뜨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의심의 영은 사제간의 관계와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일단 의심의 영이 사람 안에 자리하게 되면 의심의 영은 또 다른 영을 불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어 오는 영은 '걱정의 영'이나 '불안의 영' 혹은 '근심의 영'같은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다음으로 오는 영은 '슬픔의 영'입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절망의 영'이나 '고통의 영'도 함께 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들에게 찾아오는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은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자살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자살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만이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혔다면 내가 누구와 싸움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부분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3.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이곳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나라에 속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순식간에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깔려 있는 마귀의 정략에 대해서도 눈치를 채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였던 것입니다. 처음 그가 금 신상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몽했으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단 2:46-47).

>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단 2:46-47)

적어도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한낱 속국의 학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 것은 다니엘에게 절했다기 보다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케 하신 하나님께 절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너무나 판이한 것입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시키겠다고 선포했으며 다니엘과 세친구는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왕 앞에 붙잡혀 왔던 것이지

요. 죄목은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붙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을지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단 3:16-19).

>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렬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용광로를 뜨겁게 하기 피차 여느 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다니엘 3:16-19)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저가 "분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가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브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세 친구를 죽이려고 평소보다 7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때문입니다. 마귀가 왕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일단 통치자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

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핍박에 못 이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 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아래 두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통치자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니까 북한 주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눈을 의식해서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선전용에 불과할 뿐 현재 북한에서의 하나님 숭배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다 발각되면 공개처형을 당합니다.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천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황은 단순히 일본의 전통에 따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사람들에 있어 천황의 위치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일본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역시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허락한 교회이지만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자교회의 헌금은 교회 스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공산당에서 지정한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침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자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교회가 아니고 공산당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한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서 그 나

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지역 권세를 장악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행 19장 후반부). 이 여신상은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는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160미터에다가 세로 60미터나 되어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었는데 저들을 위한 숙식업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많은 수입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은감실을 만들었던 은장색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갔기 때문입니다. 은감실은 은으로 만든 조그마한 아데미 모형을 말합니다. 은세공장이들은 바울로 인해 자신의 수입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역권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은세공장이들은 마귀의 권세아래 놓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능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전자공학으로 철따라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자만한 쌀이 생산되는가 하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식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복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은 문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이전까지 느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향은 대중매체입니다. TV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에 적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가리켜 <바보상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TV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이 의도 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TV에 공개했던 범죄의 내용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범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는 어린이 채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이 채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괴물이 등장하며 해괴망측하고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만이 존재합니다. TV가 처음 등장했을 무렵에 보았던 순정만화나 정서적인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뿐이며 사건과 사고를 과장하는 프로만이 인기를 끌 뿐입니다.
TV와 컴퓨터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 와도 자녀들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TV를 보거나 게임하기에 열중할 뿐입니다. 모처럼 야외를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게임을 하고 TV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싫던 좋던 간에 집안에 마귀의 세력이 침투해 왔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너무나 조직적이며 그 침투가

너무나 거셉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말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요한은 이런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요일 4:5)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입을 열어 세상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살고 잇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에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 보십시오.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엔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입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사 14:11). 루시퍼는 비파를 잘 탔던 천상의 음악가였습니다. 비파는 모든 현악기의 근원을 말합니다. 루시퍼는 음악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아래 둘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락(Rock)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게중에는 사단숭배 음악도 끼어 있습니다. 사단숭배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과 평범한 락음악을 함께 들어 보십시오. 두 음악이 거의 같음을 느낄 것입니다.

마귀의 조직 파악하기

1. 마귀의 네 단계 조직에 대해서 요약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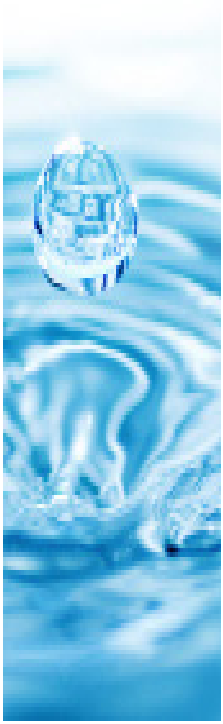
2.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2 장

/

귀신의 활동 파악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귀신의 정체 파악하기

1.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

마귀는 매우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삼분의 일이나 되는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조직의 방대함을 볼 수 없기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마귀의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뛰어났는지 그 추종자의 수가 자그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의 삼분의 일이나 되었습니다(계 12:3).

>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계 12:3)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4절에는 그 마귀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 중의 삼분의 일이 마귀에 의해 타락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꼬리'는 마귀의 꼬리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을 땅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귀때문에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이 땅으로 쫓김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은 바 된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나 되는 무수한 천사들이 마귀에 의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세 구절 밖에는 안되지만 그 구절 속에는 하늘전쟁의 치열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계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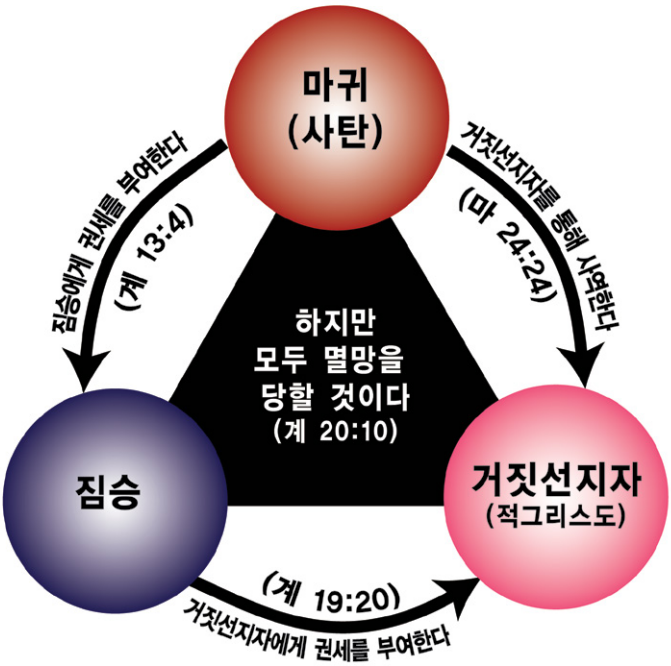
>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계 12:7)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영은 없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것은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지 않으시고 천사장 미가엘에게 마귀를 대적케 하셨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천군천사들을 대동하여 마귀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귀군대는 미가엘군대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마귀군대가 패배한 후에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땅으로 쫓으셨습니다(계 12:9).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김을 받을 때 그를 추종하던 영들도 함께 쫓으셨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났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귀와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하늘에 있을 때에는 천사로 불려졌지만 마귀를 추종하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천사라고 불리지 못하고 '귀신'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2. 귀신의 역할

귀신은 여전히 마귀와 함께 합니다. 마귀를 추종하였던 하늘의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귀와 뜻을 같이 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의 역할은 마귀의 뜻을 돕는 것입니다. 마귀의 염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때문에 귀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영(spirit)'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표기되는데 이 <퓨뉴마>는 성령님(holy spirit)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귀신과 성령님의 이름이 모두 똑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퓨뉴마>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만 다릅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모두 똑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사람 이름처럼 '홍길동'이나 '임꺽정'과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마다 특화된 전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의 전문적인 역할은 절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귀신의 역할은 자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의 이름은 각 귀신의 역할에 따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부터 '성령님'이라고 불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헬라어 표기는 <하기오스 퓨튜마>인데 여기의 언급된 <하기오스>란 단어의 뜻은 '성스러운'입니다. 다시말해 '성령'은 '성스러운 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이름도 '벙어리 귀신' 혹은 '귀머

거리 귀신'처럼 귀신의 역할에 따라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귀신이 어떠한 특화된 전문적인 역할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귀신인줄 알아야 정확한 축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귀머거리 귀신아, 떠나라!"라고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떠나라!"고 선포해야 정확한 대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신이 주어질 때입니다. 귀신을 귀신되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육신이 주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이기때문에 영으로 사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영으로만 존재하면 귀신이 싸울 상대는 영적인 존재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귀신은 육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육신을 갖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될 때 비로소 귀신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처럼 인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육신을 취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을 달성키 위함입니다. 귀신이 인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마귀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엡 2:2).

>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이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귀신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세상을 불순종한 아들들을 양성하는 교육장소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될 때 불순종한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의 전략대로 세상이라는 그물에 낚여 불순종한 아들이 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귀신이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들어갈 때에 역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헬라어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역사하다' 혹은 '일하다'란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일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일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업가처럼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마귀를 섬기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귀신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신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에게도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할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태만하거나 무관심할 경우엔 귀

신의 집요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귀신은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귀신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성품이 좋고 나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우리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귀신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있으며 마귀와 밀접하게 영적으로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신은 육신이 없는 것만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귀신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 매우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지식은 매우 단순하며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한 귀신의 감정은 어린아이의 것과 같아서 때로는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술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의 속셈이 매우 치사하기도 하고 유치한 것이여서 귀신의 행동을 보면 금방이라도 귀신의 속내음을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의 의지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달리 매우 조잡하며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결하고 헌신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에게는 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의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처럼 의리가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 의리가 지나치게 낮은 사람은 귀신에게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의리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는 축사사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귀신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귀신과 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신중하게 축사사역을 하기 때문에 귀신과 정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대화를 나눠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사사역을 많이 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귀신과 정이 들게 됩니다. 마치 내가 귀신같고 귀신이 나의 친구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역자 스스로 귀신처럼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축사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그의 지식수준이나 감정의 변화나 의지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위드바이블은 축사사역할 때 귀신과 대화하는 것을 조심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귀신의 정체를 밝히셨기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 [눅 8: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축사사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꾸짖고 나가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사사역자를 보면 귀신과 한참 대화를 나눕니다. 30분이 넘기도 하고 1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 대화가 매우 깁니다. 이런 대화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죽을라고 환장을 하면 대화를 하십시오. 귀신에게 묶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알고 싶다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다면 대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너 누구냐?"라고 간단한 말을 할 때에 귀신은 순순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어서 귀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귀신의 아버지 꼴인 마귀가 거짓말장이여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니까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입니다(요 8:44).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이처럼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때문에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마귀에게 속한자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귀신의 인격은 매우 치졸하며 간사하며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은

나가지 않으려고 다른 동료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금새 화를 냈다가도 금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도대체 줏대가 없습니다. 방금 거짓말을 했어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매우 뻔뻔합니다. 어린 자녀도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스스로 부끄러워 하는데 귀신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만한 양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치한 귀신들을 향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사역자들을 보면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귀신들이 뻔뻔하고 말로해서는 안 될 매우 비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쟤들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격도 인격나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고귀한 것이지만 귀신의 인격은 고귀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가 귀신의 인격을 인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도 귀신의 인격을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는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시끄럽게 굴 때는 "잠잠하라" 고함치셨으며 횡포를 부릴 때는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힐 때는 "나가"라고 명령하셨으며 교묘하게 거짓말로 숨으려 할 때는 "너 누구냐"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사사역의 대부분은 꾸짖는 것이었지 인격적으로 달래거나 봐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4. 귀신의 전문성

대부분의 귀신은 앞서 설명한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떤 귀신은 그와 반대로 인간의 지시과 감정과 의지를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귀신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신과 지식을 논하게 될 때에 당합니다. 귀신의 지식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귀신은 매우 사악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교묘히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악합니다. 이런 사악한 귀신들과 대화를 나누면 다른 사역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담임목사를 미워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축사사역을 하고 난 후에 부부싸움이 더 심화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귀신의 사악함이 묻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귀신은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빠져 나가는 것을 싫어하도록 그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사사역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워킹위드바이블은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을 태우는 사역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불은 안수에 의해 이뤄집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저절로 귀신의 집에 불이 납니다.

귀신의 집에 불이 나게 되면 귀신은 자의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집이 없는 귀신은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귀신은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에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불러와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귀신의 거하는 집을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을 태우게 되면 잇점이 많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게 되겠지만 집을 태우게 될 때 귀신의 거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자의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귀신이 다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경우는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자기보다 더 약한 귀신을 내 보냅니다. 동료를 고자질합니다. 또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주변의 사람을 건드리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의 가족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귀신은 나가면서까지 사람들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나갑니다.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유출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5. 귀신의 성향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귀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며 저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성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 12: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마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예수님의 전하신 예화를 보면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라는 말은 축사사역을 통해 귀신이 빠져 나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빠져 나간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다닙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라는 말은 귀신이 좋은 거처를 찾아 다녔다는 말입니다. 이전 집보다 더 멋지고 좋은 집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해서 다시금 예전에 거한 집이 생각이 나 그 집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전에 거하던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었다'는 것은 다른 아무 귀신이 그

곳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축사사역을 할 때 귀신이 빠져나가면 빠져 나간 자리가 비어집니다. 축사사역자들이 실수를 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사사역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속처리가 부족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축사사역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축사사역으로 인해 귀신이 빠져 나갔으면 그 빈 자리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제되었다'는 것은 그 집이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축사사역을 통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면 매우 개운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기쁨이 절로 납니다. 매우 행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축사사역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집이 다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있어서 그런 '소제된' 집은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도둑놈이 으리으리하게 잘 사는 집을 더 탐내지 못사는 초가집에 더 매력을 느끼지는 않듯이 귀신 또한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깨끗해서는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리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살았던 집이 수리하여서 매우 멋진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이처럼 매력적인 집이 또 어딘들 있겠습니까? 너무나 꿈에 그리던 집인 것입니다. 귀신

에게 가족이라도 있다면 가족을 데리고 평생토록 살고싶은 그런 꿈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신의 동료들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5)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귀신이 다른 동료를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혼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한번 쫓김을 받았기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귀신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여덟 귀신이 들어온 꼴이 되어서 이전보다 그 형편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 일을 많은 축사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귀신을 쫓아 내고 기쁨 충만함으로 축하 파티를 열 때에 여덟 귀신이 들어와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해지는 일을 축사사역자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쫓아내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든 것은 우리에게 축사사역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축사사역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축사사역은 귀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됩니다. 축사사역의 초점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많은 축사사역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에 정신이 팔려 그 사람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귀신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은 잘 쫓아 냅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이 빠져 나간 그 사람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후속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차만 팔고보자는 어리석은 판매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불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강력

한 치유법입니다. 성령의 불은 귀신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불은 후속조치가 완벽한 방법입니다.

6. 귀신의 침투 방법

1) 귀신은 거짓말로 침투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귀신은 그 거짓말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귀신에게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요 8:44).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2. 귀신은 참소를 통해 침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참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참소할 때 귀신은 당신의 참소를 통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참소는 마귀의 영역이기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참소할 때 그것이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때문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계 12:10).

>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 12:10)

3. 귀신은 세상의 오락을 통해 침투합니다.

귀신은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침투합니다. 세상의 정욕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때문에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침투합니다(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

4. 귀신은 음란을 통해 침투합니다.

귀신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에는 음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은 다른 세상의 오락보다 훨씬 강력한 덫입니다. 다른 세상의 오락은 모두 몸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음란만큼은 몸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덫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은 그만큼 상처가 크며 귀신들의 활동 또한 강력하게 됩니다(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5. 귀신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 침투합니다.

귀신은 당신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 당신을 침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귀신은 합법적으로 당신에게 침투합

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은 악한 것이며 이 또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약 3:14).

>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약 3:14)

6. 귀신은 다툼으로 침투합니다.

귀신은 다툼이 있는 곳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툼이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툼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약 3:14-16).

>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약 3:14-16).

7. 귀신은 거짓 가르침으로 침투합니다.

귀신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 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딤전 4:1)

>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딤전 4:1)

8. 귀신은 미움으로 침투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함께 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귀신에게 당신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당신의 미움 때문에 귀신은 합법적인 침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에 속한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것입니다(요일 2:11).

>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게 하였음이라"(요일 2:11)

마귀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9. 귀신은 슬픔으로 침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자녀가 죽을 때에도 큰 슬픔이나 배우자의 죽임이 더 큰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슬픔이 있을 때 귀신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틈을 얻게 됩니다(렘 8:18).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렘 20:18)

10. 귀신은 절망으로 침투합니다.

귀신은 또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미 귀신의 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거려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채 오히려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욥은 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어떠한 소망조차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욥 6:26).

>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욥 16:26)

11. 귀신은 근심할 때 침투합니다.

근심은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우울해지며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심(anxiety)'은 '걱정(worry)'과 사촌지간입니다.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데 '조르다(choke)'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압박하게 되어 스스로 목을 조르듯 영혼을 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밖으로 표현될 때 우울증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대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중 95%나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걱정과 근심으로 스스로 영혼을 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귀신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약 1:6-8).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6-8)

일단 들어온 귀신은 거주하려고 노력합니다.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그만큼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 귀신은 화낼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화를 낼 때 침투합니다(엡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6-27)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을 향한 분노이지만 우리의 분노는 우리를 위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13. 귀신은 불안할 때 침투합니다.

또한 귀신은 우리가 불안할 때 침투합니다. 불안한 것은 주님의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근심하다'는 단어 속에 '불안하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불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시 77:3).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영이 상하도다 (셀라)" (시편 77:3)

14. 귀신은 두려워할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침투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자는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15. 귀신은 죄를 지을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 그는 귀신의 편에 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16. 귀신은 우상숭배할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또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침투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로 인해 마귀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귀신의 사로잡음은 비단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붙잡고 온 가문을 사로잡기때문에 우상숭배로 인해 가계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출 20:3-5).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3-5)

17. 귀신은 주술에 의해 침투합니다.

귀신은 주술에 의해 침투합니다. 주술은 사술과 요술로 구분되어 집니다. 사술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피해주기 위해 벌이는 것이지만 요술은 단체가 집단을 피해주기 위해 벌이는 것입니다. 사술과 요술 그 자체가 악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왕하 21:6).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왕하 21:6)

18. 귀신은 교만한 자에게 침투합니다.

귀신은 교만한 자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누가 교만하다고 판단되면 금새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교만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교만은 날이갈수록 심해집니다.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엔 겸손하다가 뭔가 됐다 싶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귀신은 그러한 경향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할 때를 기다립니다. 물론 교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만드는 것도 귀신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잠 18:12).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

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8:12)

19. 귀신은 저주할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침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귀신의 침투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렇게 선포한 것이기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한 것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뤄지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당신의 선포를 듣고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이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귀신의 정체 파악하기

1.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2.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 귀신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4. 귀신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5. 귀신의 활동 성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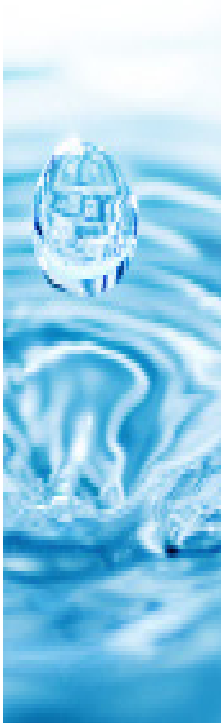
6. 귀신이 우리에게 침투하도록 틈을 제공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3 장

/

마귀를 대적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마귀의 공격 막기

1. 하나님과 동행하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통로를 마귀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결코 마귀는 당신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마귀는 당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holy spirit)께서는 오직 우리의 영과 교류를 나누십니다.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는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교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7)"

마귀는 항상 틈을 공격합니다. 커다란 구멍을 찾지도 않습니다. 커다란 구멍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커다란 구멍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귀의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그렇다할 흥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마귀는 틈을 찾습니다.
틈은 작은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적절한 틈이 될 것입니다.

>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엡 4:26)"

마귀는 당신이 화를 낼 때 "얼씨구나~"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화(anger)'를 자제하십시오. 모든 당신의 분노는 마귀에게 당신을 공격할 적절한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중팔구 당신의 계획은 세상을 위한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계획을 누가 제공한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당신에게 세상을 좋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당신에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도 틈이 됩니다. 가끔씩 사역자들이 제게 "목사님, 사역을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옵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성령님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납득이 가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벌써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사역자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쉰다고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통해 마귀로부터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 보혈을 뿌려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권세도 없고 우리를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마귀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

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일 3:8)

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엡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은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100%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파쇄하기

1. 마귀의 공격을 파쇄하는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2. 무엇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설명해 보세요.

3. 주님의 보혈이 마귀의 공격을 막는 좋은 방법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1단계

의의나무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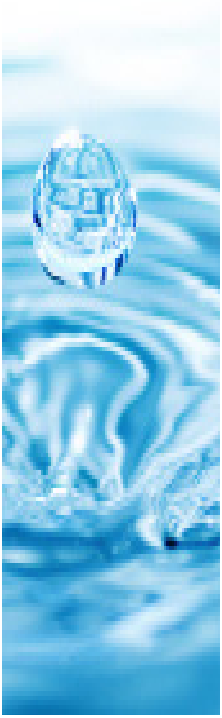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의의나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의나무의 삶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입니다.

의의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상처입은 자를 돌보며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악한 세력의 묶임을 풀어주는 일을 행합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의의나무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삶이며 하나님께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나실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의의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34 장

/

영광의 삶
살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영광의 삶 살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으뜸되는 삶은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사 43:7).

>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7)

1.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을 보면,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 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

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먼저 의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영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사 60:22)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사 60:19-20)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영영한 빛이 되며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복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직 의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에게는 빛이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무엇이며

그 빛을 어떻게 발산할 수 있을까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할 때 생겨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4-5)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안으로 빛이 들어 왔지만 그 어두움은 빛이 오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 왔으므로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이 전해 옵니다. 성경은,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에겐 빛이 임하게 될 것이며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우리는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세상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성소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친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어둠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도 예수의 기이한 빛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3. 여호와의 신

이사야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겸손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강금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수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喜樂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 61:1-3)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은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성령세례 위에 기름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부음'은 성령충만을 말합니다. 이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곧 빛이 임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 모양이 마치 맹렬한 불 같이 보았습니다.

>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출 24:17)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을 불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겔 43:2)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췸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계 21:23)

빛과 불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3)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발산됩니다. 그래서 빛

과 영광과 불은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4. 기름부음

기름부음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고후 1:21)라고 말합니다.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십니다. 성경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단 9:24)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 기름부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만 선별하시고 또 저들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출 30:30)

기름부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선별되었음을 말합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름부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기름부음이 다시 거둬들여집니다. 모세의 형이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인 나답

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 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레 10:1-2)

저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성소의 불을 통해 저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름부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다 인정하실 때 일어납니다. 기름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강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충만이라 말합니다. 성령충만이 임한 사람에겐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 120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충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베드로는 성령충만이 넘쳤을 때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행 4:8)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경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행 7:55)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쁨과 성령충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행 13:52)

영광의 삶 이해하기

1.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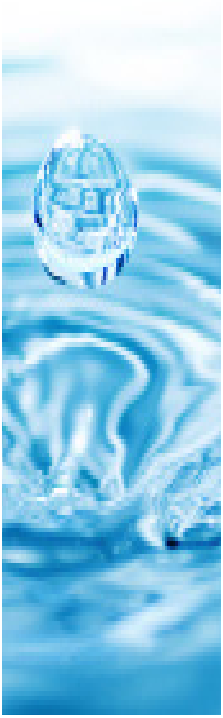
2.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5 장

/

영적예배자의 삶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영적예배자의 삶 살기

1. 영적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영적예배는 이런 예배를 말합니다. 첫째, 영적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여서는 안됩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배여서도 안됩니다. 둘째, 영적예배는 거룩한 제사여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죄가 없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예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난 날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예배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영적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는 육적 예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고 육적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

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만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러운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는 살아있지만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는 죽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육적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 하나는 사울왕입니다. 육적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서 성령을 제하셨습니다.

>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육적예배의 최후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합니다.

2. 영적전쟁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거하게 되지만 반대로 사탄을 선택하게 되면 사탄의 영이 그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17-24)

바울이 깨달은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 이 '영적 전쟁'을 하였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 영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

을 받아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영과 육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많은 혼돈과 오해를 가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육체가 가는 곳에는 영도 함께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담을 그릇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 없는 영은 거할 곳이 없지만 영이 없는 육체는 죽음뿐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눅 8:54-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전에 그 아이의 육신 속에 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

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영이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27:50).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영은 육체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육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육체가 술집에 가면 영도 함께 술집에 갑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예배의 삶 이해하기

1. 우리가 드릴 영적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2. 영적전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6 장

/

믿음의 삶 살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삶 살기

1.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얼마 못 가서 기도의 문을 닫고 마는 것은 응답이 곧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정진했어도 얼마 못 가서 포기 하고 마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6-8)

위 구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뭔가를 구하고서 그것이 이뤄질 것에 대해 의심하는마음이 있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구절은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선언하심을 보게 합니다.

'믿음'과 '의심'에 이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의심할 것을 작정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완벽한 시간낭비고 부질없는 아우성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의심'이라는 고약한 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예 주인과 나란히 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이대로 놔두면 아마 이 '의심'이라는 놈은 주인인 '믿음'까지 밖으로 내 쫓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의심'이 나란히 있는 것을 가리켜 '두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의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과 함께 의심이 있으면 아무 것도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아무것도 얻어질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시간낭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마음을 가리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흔들리는 바다 물결을 말합니다. 바다 물

결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물결은 항상 흔들림이 있습니다. 호수 같이 조용히 있어야 그 마음이 정한 것이지요.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약 1:6-8)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깊이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말합니다.

>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운 법칙 중에 그 한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것들이 있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엔 짝이 있고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마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불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다른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과 물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3. 마귀, 의심의 존재

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만 원하는데 그 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의심' 덩어리를 파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들어 올 때는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영은 썩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의심은 마귀이며 악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의심의 존재'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에 의심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심케 만듭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케 만듭니다. 친구가 친구를 의심하고 이웃이 이웃을 의심케 만듭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의심하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의심케 만듭니다. 손님이 가게주인을 의심하고 가게주인이 손님을 의심케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인간에게 의심을 주어왔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인간세상에 의심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창 3:1-2)

마귀는 아담과 이브 중 의심을 넣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브를 선택해서 이브에게 의심의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마귀의 질문을 주위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마귀의 음성에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교묘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돌리면서 이브의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두 가지 명령을 한 가지로 축약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이브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먹어도 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마도 이브는 이런 마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는 먹게 하셨어요"

이브는 처음부터 마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브는 마귀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마귀는 이브의 대답을 물고 또 다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두 번째 마귀의 질문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니?"

아마도 마귀는 이런 질문으로 이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켰을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질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혼자 먹으시려고 인간에게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생각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도 먹는 열매를 나라고 따먹지 말라

는 법이 있어'라는 식으로 선악과를 따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유도심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도 이런 유도심문을 이용한다는 것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귀에게 유도심문을 당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 당신은 지금 마귀로부터 유도심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브에게 공략했던 사탄의 유도심문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밖에 외출을 하면서 아이에게 "어린이 비디오만 보고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형이 놀러 와서 TV를 켜고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를 봅니다. 아이는 옆집 형에게 "엄마가 그랬는데 어른들 드라마는 보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때 옆집 형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가 아무 것도 보지 말라고 하던?"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가 이브에게 사용했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결국에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는 봐도 좋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옆집 형의 질문에 "엄마가 그랬는데 어린이 비디오만 보라고 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옆집 형은 "왜 네 엄마는 어른들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했을까? 혹시 너 몰래 혼자서 볼라고 못보게 하신 것 아닐까?"라고 유도심문을 할 것입니다. 결국 몇 단계 유도심문을 거치고 나면 아이는 옆집 형과 함께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아이는 엄마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왜 어른들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어른들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한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엄마 혼

자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은 교회의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원했습니다. 들어보니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자신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괜히 화만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어 봤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부모님이 너무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부모는 용돈도 많이 주고 시간 제약도 없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부에게 마귀의 계략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곤 따님의 생각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딸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의 마귀의 계략에 대한 구절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이 친구의 부모보다 더 훌륭하고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귀가시간에 제약이 있고 입고 다니는 옷에 제약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딸로서 당연히 필요한 제약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했고 신앙 안에서 잘 생활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을 집어 넣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중동지역에 어느 한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낙타에 짐을 싣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밤을 맞아 결국 험한 사막에서 텐트를 쳐야만 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텐트 속으로 쑥

하니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낙타의 발이었습니다. 낙타가 추워서 텐트에 발 하나를 걸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그럴수도 있지'하는 생각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낙타의 다른 발이 들어왔습니다. '오죽 추우면 그러겠느냐' 생각하며 이번에도 그대로 내 버려뒀습니다. 피곤한 여행길이라 잠이 쏟아져 곤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추워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사방을 살펴보니 사막이었습니다. 자신이 텐트 바깥에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텐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낙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낙타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을 집어 넣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영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곤 우리를 내 쫓아 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이브는 마귀의 유도심문에 빠져 선악과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잘못은 마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잘못은 마귀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한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잘못은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엔 의심이 가득차게 됩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요동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질문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의심은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의심은 낙심입니다. 의심은 절망감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입니다. 의심은 수치심입니다. 의심은 좌절감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의심케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수치와 우울

증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에게 의심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선포하십시오.

>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의심의 영은 썩 사라져!"

4. 베드로가 얼마큼 물 위를 걸었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 위를 걸었을까요? 특별한 상품이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맞추고 나면 너무나 귀한 상품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는 의심이 생겼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베드로는 의심이 생기자 마자 물에 빠지지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능력은 한 설교에 수천 명을 회개시켰으며 저의 치유는 그림자라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겸손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마자 베드로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순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저의 믿음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마 14:29)

한 발 한 발 풍랑이 몰아치는 험난한 물길 위를 마치 밑바닥에 벽돌이라도 깔아놓은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신이 나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 "예수님, 예수님! 보세요. 제가 걷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부터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마 14:30)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몸이 물 속

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했던 것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는 것이 느끼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보기를 원하고 보는 것에 마음을 쏟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의심의 실체를 느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 속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 능력을 잃었고 의심의 힘이 풍랑처럼 거세진 것입니다.

5. 의심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章)"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장성해 지고 나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내 사래 역시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통해서 그 약

속을 이루시겟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 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2-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 별을 보여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하인이었던 미갈에게서 아들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뭇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준 때로부터 13년 이상이 지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6-19)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 볼일 없는 시원찮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18-22)

99세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성

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늙어 더 이상 정자가 생산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이라고 말 합니다. 태가 죽어 더 이상 그 태에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믿음입니다. 저들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십시오.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갈 틈도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흔치 않습니다.
분명히 99세 이전까지만 해도 의심 많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음을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의 거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당신은 아브라함의 별볼일 없었던 믿음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오래도록 별 볼일 없는 그였지만 어느 순간에 거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지금 책을 놓고 그 결심을 선포하십시오.

>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믿음은 그렇게 될지어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살기

1. 당신에게 혹 '두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2.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3. 믿음은 어떤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4.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일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12단계

사역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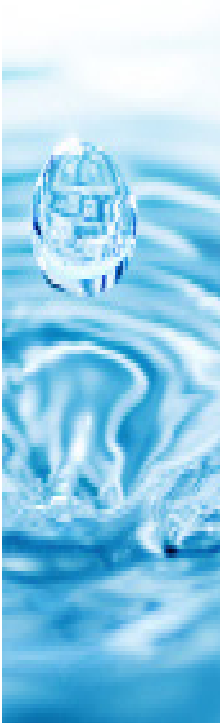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토록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백성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요 14:12).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으셨습니다(행 10:38).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처럼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막 16:17-18).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마 10:1).



37 장

/

사역자의 삶 이해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역자의 삶 이해하기

1.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택하실 때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롬 8:30).

>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정하신 사역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은 구원받는 성도를 뜻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역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으신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선지자와 같

은 사역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암 3:7).

>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2. 사역자의 길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으며 정치적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왕비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광야로 내 몰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역자로서의 준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낮아지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낮아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토록 낮아짐을 경험케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건너고 있는 고통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 마련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통의 다리가 너무 길다고 원망

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을 만나시려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처럼 거부합니다. 한결같이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갑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신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학력 때문에 꺼려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투리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덮어주시고 극복케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3. 연단이 길어지는 이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모세는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뺄 때까지 뺍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 못해요"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뺄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속사람의 모든 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나 못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자신의 속사람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첫번째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4. 사역자의 갖춰야 할 점

사역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치유자입니다(민 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 12:6)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역자이며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사용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음성과 환상이 안 열려 있다고 해서 사역자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역자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 음성과 환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힘들고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역자의 삶 살기

1. 이 땅의 모든 사역자(목회자, 선교사 등)는 누가 불렀습니까?

2. 당신은 누가 선택하여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3. 왜 사역자들이 연단과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왜 그들의 연단이 길어지는 것일까요?

4. 사역자가 갖춰야 할 은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8 장

/

교회의 질서 따르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교회질서 따르기

1. 교회의 질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오히려 일반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서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각자가 제 갈 길로 가는 식의 교회운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교회입니다.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여야 하며, 교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 교회, 주님의 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곧 성전이며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성전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3)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은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죄에 빠져 살아가거나 악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3. 성도는 주님의 지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각 성도는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능력에 따라 몸의 각자 다른 지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주님의 몸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빨리 상처 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붕대

로 감싸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상처라면 쉽게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음란 죄에 빠지게 되거나 도박에 빠진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된다면 이것은 몸에 종기가 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예전에는 '고약'을 붙였습니다. 한 동안 붙인 고약을 떼어 내면 종기의 뿌리가 고약에 달라 붙어 빠져 나옴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엔 몸에 구멍이 뻥하니 뚫려 있기도 합니다. 종기의 뿌리가 뽑아져 나오면 일반 상처처럼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른 후 붕대로 감싸주면 곧 낫습니다.
이처럼 종기의 뿌리를 뽑아 내는 것은 음란 죄나 도박죄같이 심각한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듯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 음란의 죄가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박의 영이 교인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은 말끔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암같이 강력한 질병이 있을 땐 주님의 몸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이 죽는 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암세포는 원래 일반 세포와 똑 같은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세포로 돌아선 것입니다. 암 세포는 정상적인 조절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증식만을 고집하는 세포입니다. 암 세포가 일반 세포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 멋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제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

니다. 주님의 몸은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몸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는 반면에 암세포는 세워진 질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증식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암세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암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암 세포가 있거나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암 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암 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되면 온 몸에 퍼지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문제가 활동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건이 발단하면 활동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바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 세포를 자극시키는 것은 분노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 뺨을 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가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분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

군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무조건 대듭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자신이 그릇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던 암 세포를 자극해서 암 세포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조용히 있는 암 세포가 활동하는 암 세포로 바뀔 때 다시 한번 활동하는 암 세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암인자'라는 특유의 면역세포를 준비하셨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방어진'이라고 할까요. 항암인자의 말을 암 세포가 잘 들으면 활동을 멈추고 다시 조용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한 조용히 있던 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암인자'는 '회개'입니다. 성도가 회개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정상적인 몸으로 변형됩니다.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인격 등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보혈'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도로 변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과 눈물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못된 성격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못된 본성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한 줄기 치유의 광선이 병든 사람의 영혼에 내리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럽고 추악한 세포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곤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 암 세포

교회에 이러한 암 세포가 있으면 안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는 모두 암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암 세포와 같은 성도는 자기 뜻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을 사랑했으며 교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14)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정죄함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칭호를 뒤로한 채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듯이 루시퍼는 그의 교만 때문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지옥 불에 떨어질 신세로 전락

하고 말았습니다.
암 세포는 루시퍼와 같은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좋아하면 루시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당신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루시퍼를 따른 천상의 천사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쫓았던 그의 사자들이 얼마쯤 되는지는 다음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계 12:3-4)

마귀가 하늘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후에 땅에 떨어질 때 자신과 함께 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무려 그 수가 하늘 천사의 삼분의 일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꺾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은 우리 앞에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교회 내에 암 세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교만을 심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교만'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처럼 '타락'하게 될 것이고 '멸망'될 것입니다.

5. 하나님 질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반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바울의 말한 바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고전 12:26)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

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는 서로가 아름다운 존재이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전 12:21)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발이 스스로를 가리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손이 스스로를 가리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의 지체로 있다면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사모하고 높은 직책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직분을 속한 사람들을 마치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주셨다"(고전 12:23-24)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바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전 12:28)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내에 몇 가지 그룹을 정하

셨습니다.

1) 사도(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대제사장에 넘기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앞 구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행 9:3)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바울은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님이 되었던 3일 동안에 자신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에 대해 깊이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도'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

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들 중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환상으로 주님을 만난다 할찌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라고 칭한 사람은 당신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옳으며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 1:1)

바울은 사도였으며 그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2) 선지자 (프로페테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라도 스스로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에게 이런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 있음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듯이 그렇게 오늘날에도 직접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3) 교사 (디다스칼로스)

우리나라 성경에서 '교사'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선생'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랍비'보다 훨씬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말을 하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육적이고 혼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일반교사의 뜻이라기 보다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로 들 수 있는 안디옥교회에도 '교사'가 있었습니다.

>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 13:1)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성경은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행 20:18-20).

바울은 저들에게 겸손과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교사'는 바울의 행한 대로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교사'는 '선생'보다는 '목사'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몰려온 장로들을 향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행 20:22)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행 20:37) 바울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여! 바울처럼 되소서. 당신들이 목회를 그만 둘 때 누구 한 성도라도 이처럼 당신의 목을 끌어 안으며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울 사람들이 있습니까?

4) 능력 (뒤나미스)

바울이 언급한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네번째 언급된 것은 직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능력'이라는 단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번째까지는 모두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일곱가지는 모두 은사적인 구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라는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은사를 자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몇 가지는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은사적인 구분이며, 은사를 통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종류에 따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우선적인 자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미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도'적인 직분을 담임목사가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담임목사를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도'의 직분

을 받은 담임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은 담임목사에게 순종하면서 당신의 은사를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위치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신이 금가루를 내리게 하고 금이빨을 만들어 내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 네번째 순위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 병고치는 은사 (이아마 카리스마)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병고칠 수 있는 신유은사 소유자보다 더 위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신유의 은사를 전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속에서는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떠나 계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들 때마다 스스로 한적한 곳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6) 서로 돕는 것 (안틸레프시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용된 것 말고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더 깊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붙잡음'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족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다시금 교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잡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바나바사역'이라고 합니다.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보를 보내고 교회 잡지를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엽서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서로 돕는 은사에 속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7) 각종 방언을 하는 것(게노스 글롯사)

각종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언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대신해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전세계 언어를 빨리 통변할 수 있는 기계가 통역자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각 나라의 언어를 빨리 통변할 수 있는 통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역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 족속의 방언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작은 부족을 방문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저절로 그 족속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우 빨리 그 부족의 언어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방언 통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변하는 것보다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방언하는 은사는 사실상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할 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가장 크고 점점 작은 열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뿐일 것이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열매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맨 마지막에 언급된 '방언들 통변'하는 은사보다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한 은사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종류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28절에 언급하고 있는 질서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사도'이며 가장 나중이 '방언하는 자'입니다.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돕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윗단계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당신은 사울왕처럼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이 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보통 교회는 <목회자-장로-권사-집사-성도>순으로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러한 질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직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워진 질서에 따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천주교의 경우는 일반교회에 비해 다소 직분이 복잡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추기경-주교-사제-부제-신도>의 질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경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성경에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저들에게 제자훈련을 했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에게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한다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이발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옷도 그렇게 입을 수는 없겠죠.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니 요즘 목사에게 옛적에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라고 권유한다면 목사는 심방 갈 때마다 U-haul 트럭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될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놀라운 비밀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일곱 가지 직분을 통해 하

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권고를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말씀임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언급은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 명도 못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음성도 못 듣고 환상도 못 보고 신유의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다 무시하고 오늘날 세운 질서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는 것이 옳은 믿음일 것입니다.

7. 열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열쇠'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열쇠를 사용할 때 문이 열립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도둑이라고 몰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감

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담임목사가 한 사람만 필요한 법입니다. 당연히 성가대에는 한 명의 지휘자밖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동시에 두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거대한 성가대를 지휘할 때는 한 명의 지휘자를 보고서 여러 지휘자가 똑같이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가대에는 한 명의 지휘자만 필요합니다.
정명훈 지휘자는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정명훈 지휘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명훈 지휘자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매주마다 지휘하면 몰라도 우리 교회 지휘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인도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전도사 허락 없이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해당 전도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등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시골의 작은 성당에 가서 그곳 사제를 제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 전체의 열쇠는 교황이 받았지만 작은 성당을 인도하도록 열쇠를

받은 사람은 그곳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다 자기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만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는 그에게 맡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담임목사 허락 없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지라도 담임목사 허락 없이 설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조차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쇠'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열쇠'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완전 망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집집마다 찾아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교회를 하나씩 떠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권사님은 담임목사를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담임목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쇠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담장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열쇠를 가지고 있었겠죠. 친교담당 열쇠!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가 친교담당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열쇠인줄 알고 열심히 문을 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다가 안되니까 도둑같이 담장을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되었고 결국은 큰 문제로 발생된 것

을 어찌 그 권사님이 알겠습니까. 어쩌면 천국에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쇠'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은 좀처럼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전 5:22)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담당 선생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절대로 담당 선생님께 "야~"라든가 "누구야"라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000 선생님"이라고 깎듯이 대우를 해 줬습니다.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대우해 줬을까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초등학교 1학년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에 대한 이해입니다.
담임목사가 해임되거나 교회를 떠나면 그 밑의 부목사나 전도사는 다 해임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새롭게 부교역자가 선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이 죽으면 왕의 신하들이 통째로 다 같이 죽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목사의 적이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임목사를 제거해야 자신이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모두 공동운명입니다.

8.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교회의 질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담임목사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예언자쯤 되는 줄로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큰 문젯거리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도무지 담임목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임목사도 하나

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담임목사와 동급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당연히 '열쇠'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없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목사님,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

부분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그것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담임목사에게 찾아가 성령님께서 들은 내용을 말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들은 음성에 대해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들은 음성을 점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러한 점검을 무시한 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 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고전 14:32)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재를 받게 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예언만 듣지 말고 여러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순서대로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질서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찌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고전 14:29-31)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담임목사가 예언을 하지 못할 경우엔 더더욱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교회 내에서 절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엔 교회에서 떠나라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도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단순히 예언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예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2~3명 정도의 예언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예언만이 절대

적인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입견이 들어간 예언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교회는 보다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9. 교만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음성을 듣고 너도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다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도 음성을 듣고 나도 음성을 들으면 서로 똑 같은 등급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 중에서도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나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각자의 진에 머물면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잽싸게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출 11:29)고 말했습니다.

모세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위해 오직 모세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열쇠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을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가나안땅을 정복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120세였지만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열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이고 똑같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무지를 가장한 교만한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남의 '열쇠'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못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게 어떤 열쇠가 주어졌는지 잘 모를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열쇠를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은 마치 열쇠더미를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입으로 아무 소리를 내 뱉고, 달린 손으로 아무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8:1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된 것은 그의 '교만'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삼분의 일이나 되는 천사들도 '교만'을 좋아해서 마귀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을 더 사랑해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교만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쳐든 놋뱀을 기억합니까? 광야생활에 짜증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 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놋뱀을 쳐다 보고 산 사람보다 쳐다보지 않고서 죽은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굳어 있어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적으로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만한 줄 알면서도 교만한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담배가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남의 '열쇠'를 빼앗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갖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의 '열쇠'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열쇠'만 사용하십시오.

교회의 질서 따르기

1.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성도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몸과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3. 교회 내의 암세포는 어떤 성도일까요?

4. 사람의 몸 안에 질서가 필요하듯이 교회에서 필요한 질서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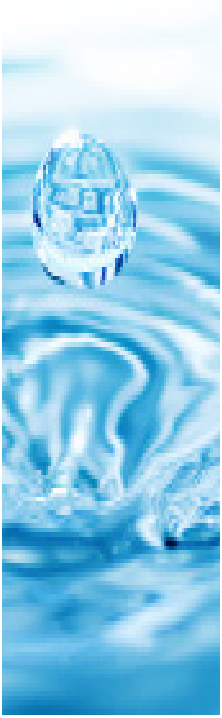
5.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39 장

/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어느 유명한 성령사역자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영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네 가지였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조금 신빙성이 없는 느낌이 들어 성령님께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첫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영어로 보면 단순한 <spirit>입니다. 헬라어로 <프뉴마>인데 이것은 성령을 포함해서 모든 영들에 대한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이곳에 쓰인 <신령>이라는 말도 <프뉴마>입니다.놀라운 것은 귀신에 대해 사용될 때에도 같은 <프뉴마>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귀신들도 다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구절 중에서 하나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10:1)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프뉴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 읽을 때 볼 수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이든지 악한 영에 대한 단어는 전부 <프뉴마>입니다. 단지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프뉴마)'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사용할 때 '성(하기오스)'과 '영(프뉴마)'를 붙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스럽다는 뜻의 <하기오스>와 영이라는 뜻의 <프뉴마>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에 사용될 때에는 항상 <더러운>이나 <악한> 혹은 <벙어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영>이라고만 표기해 있다면 그 <영>이 어떤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을 통해서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수식어를 함께 상용하여 그 <영>이 어떤 <영>을 뜻하는지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요한이 언급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한 사도요한의 뜻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셨으며(창 3:8),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출 33:23). 사도요한은 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며(계 4:3)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사람 같다(겔 1:28)고 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성경에 씌어져 있는 내용을 당신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정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은 요한의 말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9)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영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육적으로 드리지 않듯이 하나님을 육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눈으로는 결코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으며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겼던 불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삼상 4:11)

물론 그 때에도 지성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놓여있지않는 지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의 빼앗긴 소식을 듣고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과 함께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이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삼상 4:19~22)

언약궤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모든 예배와 제사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준비한 성막에 안치했습니다.

>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삼하 6:17)

다윗은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했으며 언약궤로 인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언약궤를 다윗처럼 당신의 성전에 안치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으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언약궤로 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난 매일 언약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언약궤는 키가 183cm나 되고 몸무게가 100kg을 넘는 나에게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조그만한 상자입니다. 현대인 성경은 언약궤의 크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치로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 "브사렐은 아카시아나무로 가로 113센티미터, 세로 68센티미터, 높이 68센티미터의 궤를 만들었다"(출 37:1)

성령님께서 내게 언약궤로 들어 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영의 기도를 할 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온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도 받았으며 손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수 많은 침이 돋는 느낌도 받았으며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느낌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시로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은 나를 이끄시고 천국을 보여 주셨으며 여러 지역을 함께 돌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영광의 빛에 휩싸인 보좌의 모습도 보았으며 천사들의 찬양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단 한번도 성령님의 대화가 없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으며 그때마다 항상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나의 경험이 당신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영의 기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결정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지금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2. 하나님을 아십시오

영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육적인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런 조잡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정의의 단계를 높여주는 심리학이나 어떤 수준 높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영으로 이해되는 책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은 혼(mind)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으로만 이해 되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1장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1장의 어느 한 부분을 읽어 봅시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3~24)

만약에 이 구절을 육(body)적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말씀을 가짜로 취급할 것입니다. 혼(mind)적으로 읽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글쎄,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spirit)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

까?
똑같은 구절이지만 육(body)적으로 읽는 사람과 혼(mind)적으로 읽는 사람이 다르고 영(spirit)적으로 읽는 사람이 다른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을 잘 알고 지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들은 혼(mind)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으로만 이해 되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1장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1장의 어느 한 부분을 읽어 봅시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3~24)

만약에 이 구절을 육(body)적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말씀을 가짜로 취급할 것입니다. 혼(mind)적으로 읽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글쎄,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spirit)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

까?
똑같은 구절이지만 육(body)적으로 읽는 사람과 혼(mind)적으로 읽는 사람이 다르고 영(spirit)적으로 읽는 사람이 다른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을 잘 알고 지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말씀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이 전혀 지루해지지 않으며 읽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성경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성령님께서 성경말씀을 풀어 주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에게 직접 성경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어떠한 성경학자나 주석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니힌 목사는 성령님과의 대화가 가능할 때 거의 1년 동안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내가 알기론 그는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것도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경해석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알기론, 그의 성경해석은 인

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풀어주신 해석이 분명합니다.
나 역시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석을 보고 머리를 짜 내도 알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성령님께 그 구절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성경구절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 음악을 듣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고 멈춤이 없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꿈을 해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의 꿈을 들을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은 내용이 어떤 해석이 될 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을 뿐입니다. 다들은 다음 성령님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5초도 안 되어서 성령님의 해석은 곧 바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긴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 해석은 1분도 채 안 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요셉처럼 꿈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보지도 못한 꿈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얼마쯤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게 캘리포니아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동안 기도에만 열중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성령님께서는 내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성령님은 설교원고를 만들지 말고 설교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설교원고를 잘 준비해도 말씀을 증거할 때 떨리곤 했는데 설교원고를 준비

하
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교를 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단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여 단 위에 섰습니다. 조금이나마 설교 말씀의 줄거리라도 얻기 위해 성경본문을 읽으려 할 때면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설교내용에 대해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설교제목이나 설교본문은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토요일날 성령님께서 설교제목과 설교본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설교를 위한 그 어떠한 준비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무슨 단서라도 얻고 싶어 안달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적인 준비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난 설교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었기 때문에 설교하러 단 위에 서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내가 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설교 하면서도 '아하~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설교말씀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님께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내 음성만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당신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을 잘해설할 수도 있고 말씀 증거를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3.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9~10)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세 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도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경우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한 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 문제를 놓고 여쭸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 언제 주님과 대화를 나룰 수 있죠?"

성령님께서는 내게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에 샘 나실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든 아니면 주님과 대화를 나누든 모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성령님,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세 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었을 뿐이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게 같은 것입니다.

>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모두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 혼자서 사시는 것도 아니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원이시고 주님은 근원됨을 나타내시며 성령님은 그 근원이세상에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특별할 경우에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하나님이십니다.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나는 성령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합니다. 한 순간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땐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마음 속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선 먼저 육을 죽여야 합니다.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만약에 당신이 영으로 살아가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합니다. 아마 일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육체적인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영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4)

바울은 영과 육의 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더 큰 사람이 있으며 영의 몸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몸이 더 큰 사람은 육의 몸이 작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육체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의 삶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며 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 있으면 영은 죽습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육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살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세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와도 이 세가지 카테고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창 3:6).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세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마 4장).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신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물론 성령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성령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결'의 과

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곧 '성령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영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성경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영으로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영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1.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2.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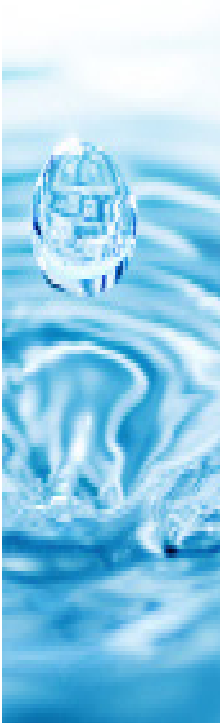
4.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동행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40 장

/

구제의 삶 이해하기

삶나누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눠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 봅시다..

간증하기	한 주간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묵상	성경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영적메시지를 나눠봅시다...
성경읽기	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말해봅시다...
성막기도	한 주간 드린 성막기도의 영적체험을 나눠봅시다..
영성일지	한 주간동안 영성일지를 쓰셨나요?
복음전하기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예배드리기	한 주간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숙제점검	숙제(영성글읽기, 방언하기 등)를 하셨나요?

생명수마시기

성경을 통해 생명수를 마셔봅시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구제의 삶 이해하기

1. 구제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 중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서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는 변함없이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구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고 말하면서 구제는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제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습니다(딤전 5: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딤전 5:10)

또한 바울은 구제를 행할 때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롬 12: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2. 구제의 효력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는 그가 구제를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방문한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 10:31)라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행함을 보시고 고넬료를 구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구제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다비

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였기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행 9:36).

>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행 9:36)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 12:33)고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히 쌓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고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잠 28:27).

>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 28:27)

3. 모든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을 구제하셨습니다. 생명수교회도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근간 사역은 예배, 선교와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선교를 통해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구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제하심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구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구제를 행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제는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구제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보다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면 하나님도 감추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 구제의 손길을 내밀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주님은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고 구제의 축복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

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제의 삶 살기

1. 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2. 구제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3. 모든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 사람과의 관계회복 / 마음의 상처치유 / 일상생활 문제해결 / 질병치유 / 사역(목회) 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깨달음을 위한 작은 공간

의의나무제자훈련

펴 낸 날 1판 1쇄 2015. 8. 21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 (데이빗리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의의나무제자훈련은 ...

예수께서 명하신 '위대한 사명(the 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것입니다.

의의나무제자훈련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제자를 양육하도록 돕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는 제자훈련 복음전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제자훈련복음전도자가 되면 스스로 제자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많아지고 많아질 때 이 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가득찬 땅이 될 것입니다.